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작 품 소 개 서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i>SF 애니메이션 (극장용)</i> <i>비틀컴бат (Beetle combat)</i> <b>환경보존 로봇과 에너지생성 로봇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b>
스토리 구성 (Plot)	<p>가까운 미래,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녹지를 잃고 물을 잃어 사막화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상에 마지막 남은 녹지를 녹색지대라 명하고 특별 관리한다.</p> <p>공학박사인 정박사는 환경을 되살릴 개구리 형상의 친환경 로봇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마박사는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카멜레온 로봇 (카멜)과 천리안 올빼미 로봇(아울)을 완성한다. 석유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멜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문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청정풀잎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문제 못지않게 에너지 문제가 시급한 정부는 카멜에게 녹색지대의 풀잎을 소비할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한다. 이에 의혹을 느낀 정박사는 반디와 프로그램을 환경의 파수꾼으로 녹색지대로 보내면서 이들 로봇은 운명의 대결을 펼친다. 충돌 후, 정박사와 마박사는 각각 공격력을 강화한 호위로봇을 완성시켜 대결은 전면전으로 번지는데...</p> <p>과연 정박사는 마박사의 야심을 꺾고 녹색지대와 지상낙원 민들레언덕을 지킬 수 있을까?</p> <p>자세한 스토리는 시나리오 본문 참조 바랍니다.</p>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뒷면에 있습니다.

## ●●● 기획의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90년 즈음엔 한반도에서 겨울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황사는 더 심해지고 물, 에너지 부족현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자연을 돌보지 않고 개발에만 몰두한 인간에게 인과응보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환경파괴로 녹지가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박사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려는 마박사의 대결이 주축을 이룬다.

즉,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상충된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된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게 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을 떠나선 살 수 없으며 지혜롭게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 ●●● 작품컨셉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정박사와 마박사가 개발한 로봇과의 대결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라기 보단 임무가 다른 로봇과의 필연적 충돌이 시나리오 전편에 계속된다. 로봇은 애니메이션에서 실사영화까지 무한한 판타지를 제공하는 아이탬이다. 아이에겐 꿈과 환상의 세계를, 어른에겐 어린시절 로봇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련한 향수를 자극한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로봇은 흔히 상상하는 거대 전투병이 아닌 동물이나 곤충 형태의 로봇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가 될 것이다.

## ●●● 작품배경

이 애니메이션은 미래 사막화된 도시가 배경이다.

짙은 황사로 인해 세상은 온통 황토빛이기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일은 요원하다.

사람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며 바깥 공기를 마실 땐 특수호흡기를 착용한다.

차량들은 석유의 고갈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고 모래 위를 달릴 수 있는 사막용 차량만 운행한다. 연구소 사람들은 공중 부양하는 개인용 비행선이 이동 수단이다.

도시에 오아시스 같은 녹지를 정부는 녹색지대(Green zone)라 명하고 특별 관리한다.

녹색지대 주변으로 경계선이 쳐있고 광선총으로 무장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킨다.

만약 녹색지대를 무단침입한 자는 불법으로 경비병에게 체포,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

귀중한 녹색지대를 관리하는 자가 국가권력의 핵심이 되어 시민들을 통제한다.

가까운 미래,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녹지를 잃고 물을 잃어 사막화 되어버렸다. 이에 정부는 지상에 마지막 남은 녹지를 녹색지대라 명하고 특별 관리한다. 공학박사인 정박사는 딸 단비의 열두 번째 생일날 반딧불이 로봇(반디)을 선물하고 민들레언덕으로 데려간다.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높은 산봉우리의 청정낙원, 민들레언덕을 신기해하는 단비에게 정박사는 세상을 다시 푸르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한다. 정박사는 환경을 되살릴 개구리 형상의 친환경 로봇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프로그램은 입으로 황사공기를 들여 마시고 정화된 맑은 공기를 배출하는 자연 지킴이 로봇이다.

한편, 같은 공학박사인 마박사는 대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카멜레온 로봇(카멜)과 천리안 올빼미 로봇(아울)을 완성한다. 석유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멜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문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청정풀잎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문제 못지않게 에너지 문제가 시급한 정부는 카멜에게 녹색지대의 풀잎을 소비할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한다. 이에 의혹을 느낀 정박사는 반디와 프로그램을 환경의 파수꾼으로 녹색지대로 보낸다. 녹색지대에서 카멜을 감시하던 프로그램과 반디는 카멜이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생긴 유독액체를 몰래 배출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카멜은 필살기 위장술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프로그램과 반디는 기지를 발휘해 응징한다.

첫 번째 충돌 후, 정박사와 마박사는 본격적인 대결을 예견하고 공격력을 강화한 호위로봇을 완성시킨다. 정박사는 프로그램의 호위로봇으로 사슴벌레 로봇(비틀)을, 마박사는 카멜의 호위로봇으로 전갈 로봇(스콜)을 만든다. 비틀은 강력한 집게가 주무기라면 스콜에겐 6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꼬리침이 있다. 녹색지대에서 신경전을 펼치던 카멜과 프로그램은 또 다시 충돌하는데 호위로봇까지 가세해 대결은 전면전으로 번진다. 천신만고 끝에 프로그램과 비틀이 승리하지만 분노에 찬 마박사는 위험한 음모를 꾸민다. 마박사의 아들 바람은 이런 아버지의 야심에 환멸을 느끼고 경쟁자인 단비의 편을 든다. 마음속에 점점 단비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바람.

마박사의 야심작,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벼룩 로봇은 프로그램 기계내부에 침투해 명령체계를 망가뜨린다. 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를 점검하던 정박사의 몸속으로 침투한 벼룩로봇이 인공심장을 멈추게 해 정박사는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단비와 바람이 벼룩로봇의 범행을 밝혀내자 반디는 벼룩로봇을 찾아 복수하려다 합세한 아울에게 큰 부상을 당한다. 반디를 보호하려던 비틀 마저 아울에게 붙잡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바람은 벼룩로봇에게 바이러스 감염된 프로그램을 치료해 반격을 준비한다.

한편, 유독액체 배출을 이유로 녹색지대 경비병들의 카멜추방작전이 펼쳐지는데 위기의 카멜을 아울이 구해준다. 아울은 폐허가 된 녹색지대 대신 새로운 청정녹지를 찾아 민들레언덕으로 카멜을 데려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단비, 바람, 프로그램은 비행선을 타고 민들레언덕으로 향하는 도중 아울의 저항에 부딪히지만 재치 있게 물리친다. 프로그램은 카멜과 민들레 언덕을 차지하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을 펼치지만 하지만 더 강력해진 카멜에게 무참히 KO패 당한다. 단비는 생전에 정박사가 선물해준

호신용 거미로봇으로 끝까지 저항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실패하고 만다.

폐색이 짙은 그 순간, 제거된 줄로만 알았던 비틀의 등장으로 사태는 급반전된다. 승리를 눈앞에 둔 비틀, 하지만 그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는다. 자신의 분신 같은 로봇들의 최후를 목격한 마박사는 분노에 사로잡혀 민들레언덕으로 향하다 죽을 고비에 처하지만 아들, 바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한다. 헛된 야망을 뉘우친 마박사는 단비에게 사죄하고 단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연을 지켜달라는 말로 마박사를 용서한다.

바람이 불어 민들레 홀씨가 세상 아래로 날아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단비는 푸른 자연 속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꾼다.

## Character

**정박사 (남, 45세)** 공학계의 1인자.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되살리는 로봇을 개발한다. 딸에겐 자상한 아버지며 일에는 철두철미한 프로다. 상황에 쉽게 동요되지 않는 진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 인덕이 느껴지는 얼굴에 넉넉한 체격이 중후함을 느끼게 한다.

**마박사 (남, 45세)** 공학계의 2인자. 정박사와 과학대학 동창. 정박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냉소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작업에만 몰두하는 위커홀릭형 인간. 그로 인해 아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관계가 악화된다. 마른 체격에 매서운 눈매가 차가운 인상을 풍긴다.

**단비 (여, 12세)** 정박사의 외동딸. 귀엽고 예쁜 얼굴에 순수함을 간직한 소녀. 로봇들이 잘 따르는 묘한 매력을 지녔으며 해맑고 감성적이다. 조금 야윈 몸에 호흡기가 약해 외출 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다. 좋은 친구와 같은 아빠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바람 (남, 15세)** 마박사의 아들.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 미소년 스타일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하며 모험심이 많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기계들을 접해 로봇과 컴퓨터 조작이 능숙하다. 아버지의 야망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충돌한다. 아버지 라이벌의 딸인 단비에게 점점 끌리는 감정을 느낀다.

그 외 녹색지대 관리대장, 경비대장, 경비병 등등...

## [ 정박사의 로봇 ]



- ▲ 황사공기를 맑게 정화시키는 자연의 파수꾼.  
능글맞은 성격으로 정박사 로봇의 리더다.  
익살스러운 장난꾸러기.  
개구리 형상으로 점프력이 탁월하다.

**필살기** - 혀 편치, 모래 뱉기, 박치기  
**몸길이** - 2m



- ▲ 반딧불이를 닮은 프로그와 비틀의 안내자. 호기심이 너무 많아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날렵한 비행능력과 뛰어난 시력을 가졌다. 꼬리의 불빛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레이저빔을 투사해 입체 영상을 재생시킨다.  
**몸길이** - 12cm

- ▼ 단비의 호신용 로봇.  
작은 몸체의 로봇이지만  
무리를 지어 상대 로봇을  
압박, 무력화시킨다.  
**필살기** - 거미줄 포박  
**몸길이** - 15cm



- ▲ 사슴벌레를 닮은 프로그의 호위로봇.  
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하장사.  
견고한 몸체와 강력한 집게를 가졌다.  
평소엔 느릿하고 여유롭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강한 포스의 공격본능을 가졌다.  
**필살기** -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집게  
**몸길이** - 5m

[ 마박사의 로봇 ]



- ▲ 청정풀잎을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카멜레온 로봇.  
주변색으로 몸을 바꾸는 위장술에 능하고 꼬리를 이용해 나뭇가지를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신경질적이며 괴팍한 성격.  
**필살기** - 위장술, 강력한 꼬리치기  
**몸길이** - (꼬리 펴서) 5m

- ▶ 전갈을 닮은 카멜의 호위로봇.  
카리스마 넘치는 살인병기.  
자존심이 강하며 건방질 만큼 자신만만하다.  
**필살기** - 6만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꼬리침  
**몸길이** - (꼬리 펴서) 3m



**아울**  
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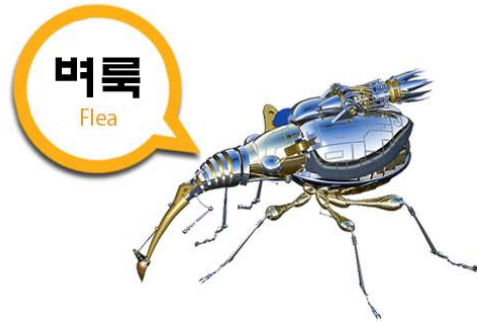
- ▶ 탁월한 천리안 시력을 가진 올빼미 로봇.  
주위를 살피며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고  
알리는 전령. 큰 몸체에 비해 날렵한  
비행능력을 가졌다. 과묵하게 지켜보며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노련한 전략가.  
**필살기** - 날카로운 발톱, 날개치기  
**몸길이** - 2.5m

▶ 마박사의 비밀병기 벼룩로봇.

로봇의 기계내부로 침투해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무시무시한 로봇. 자기 몸길이의 1000배 이상 뛰는 놀라운 점프력을 가졌다.

**필살기** - 상대방 로봇 시스템 파괴하기

**몸길이** - 1mm



▶ 음흉한 스파이로봇.

닌자처럼 날아와 몰래 염탐하기가 특기다. 로봇의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등 잔심부름꾼. 수다스럽고 경망스럽다.

**필살기** - 소리 없이 로봇 두뇌칩 제거하기

**몸길이** - 1m

위 캐릭터 이미지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작품 속 캐릭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1 프롤로그

사막화된 미래도시를 천천히 훑는 화면.

땅은 모래언덕으로 변해있고 빌딩들은 모래바람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침식되었다.

인적도 드문 스산한 분위기. 바람이 행하게 불자 모래바람이 인다.

모래 위에 살짝 빠져나온 신호등만이 예전 이곳에 수많은 차량이 통행했음을 말해준다.

자막 : 가까운 미래,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지구는 녹지를 잃고 물을 잃어 사막화 되어 버렸다. 정부는 지상에 마지막 남은 녹지를 녹색지대라 명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하는 녹색지대 특별보호법을 제정한다.

화면이 오아시스 같은 녹지를 향해 다가간다.

경계선에 녹색지대(Green zone) 팻말이 붙어있고 광선총으로 무장한 SWAT요원 같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다. 경비병의 눈빛이 주위를 삼엄하게 살핀다.

## #2 정박사의 연구소 \_ 밤

부드러운 자유 곡선으로 이뤄진 메탈 건물.

마치 외계 생명체를 닮은 요상하게 생긴 정박사의 연구소 외관.

화면이 건물로 다가가 불 켜진 창문으로 쑥 들어가면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 찬 연구실이 펼쳐진다. 고철로봇에서 섬세한 로봇까지 온갖 로봇의 전시장 같은 분위기.

하얀 가운데 하얀 수염, 온화한 인상의 정박사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기계를 조립해 마우스 크기의 로봇을 만드는 정박사의 섬세한 손길.

그 로봇은 반딧불이(반디)의 형태다.

## #3 단비의 방 \_ 밤

예쁘게 꾸며진 소녀 단비의 방.

방안 곳곳에 아버지(정박사)가 만들어준 곤충을 닮은 로봇들이 가득하다.

귀뚜라미 로봇이 방에서 폴짝 뛰어다니고 벽엔 매미로봇이 붙어있다.

방 안을 훑던 화면이 창가를 포착하면 단비가 망원경으로 창 너머 어딘가를 관찰하고 있다.

단발머리에 단아한 옷차림의 단비는 아직 아이의 티를 벗지 못한 귀여운 소녀다.

하얗고 가름한 얼굴에 몸은 좀 야위어 보인다.

동그란 망원경 시점으로 보이는 마박사의 연구소.

뽀족한 날카로운 느낌의 메탈 건축물이 음산한 기운을 준다.

불 켜진 연구실 창문을 통해 뭔가를 조립하는 마박사의 모습이 보인다.

마박사는 정박사와 대조적으로 검은 가운데 매서운 눈매가 냉소적인 인상을 풍긴다.

망원경 시점이 옮겨지면 또 다른 창문에 미소년 바람이 비친다.

멋들어진 바람머리의 소년을 향해 줌 인되는 망원경 시점화면.

뭔가에 몰두하던 바람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 돌려 망원경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뜨악 놀라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벽에 숨는 단비, 얼굴이 빨그레하다.

단비 (혼잣말) 어떡해... 날 봤어..

단비의 발에 꿈틀꿈틀 기어 올라오는 애벌레 로봇.  
애벌레 로봇이 단비의 치마 속으로 기어오르자 간지러운 듯 깔깔대는 단비.  
이때, 방 안의 대형모니터가 켜지며 정박사의 모습이 비춰진다.

정박사 애야, 생일선물 완성이다!

단비가 기대감에 찬 얼굴로 애벌레 로봇을 침대 위에 던져놓고 방을 달려 나간다.  
침대 위에서 여전히 꿈틀대며 기어 다니는 애벌레 로봇.

#### #4 정박사의 연구실 \_ 밤 ► 낮

벌컥 문을 열고 정박사에게 달려오는 단비.  
정박사의 손바닥 위에 앙증맞은 반디로봇이 놓여져 있다.

정박사 우리 딸 맘에 쏙 들걸.  
단비 와~ 귀엽게 생겼다.  
정박사 잘 봐. 반디, 보여줘.

정박사의 명령에 반디로봇의 날개가 파닥거리면서 날아오른다. 환호하는 단비.  
반디가 꼬리 부분에 신비스런 광채를 뿜으며 단비의 머리 위를 맴돈다.  
단비가 손을 뻗으면 손바닥에 앉을 듯하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를 반복하는 반디.  
마치 동화 속의 퉁커벨 요정 같다. 반디를 잡으려 뛰어다니며 깔깔대는 단비.  
술래잡기처럼 잡힐 듯 말 듯 장난스럽게 날아다니는 반디가 화면을 향해 날아와  
광채를 내뿜으며 W.O

W.I 시간경과. 낮. 생일 케익에 불을 붙이고 테이블에 마주앉은 정박사와 단비.  
단비는 생일이라 특별히 예쁜 옷으로 차려입었다.  
테이블 위 반디가 케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슬금슬금 다가가 발로 톡톡  
건드려본다. 발에 하얀 크림이 묻자 질겁하며 물러서는 반디.  
그러다 크림 묻은 발이 미끄러져 파당- 넘어진다.  
어리버리한 반디를 놀리며 깔깔 웃는 단비.  
뽀루통한 반디, 발에 크림을 잔뜩 묻히고는 날아올라 단비의 옷 속에 파고든다.  
반디의 깜찍한 복수다. 간지러워 몸을 비비꼬는 단비.

단비 (깔깔대며) 너 안 나와? 잡히기만 해봐, 너..

단비와 반디의 살가운 장난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정박사.  
단비의 옷 속에서 빠져나온 반디가 단비의 머리 위를 놀리듯 맴돈다.

단비, 손을 휘저어 잡아보려 하지만 쥘새 피하는 반디.  
반디가 연구실을 까불까불 날아다니다 투명한 유리창문에 철퍼덕 부딪혀 미끄러진다.  
헤롱거리는 반디를 보며 허를 쭉 내밀고 놀리는 단비.  
창 너머 보이는 황사 자욱한 도시의 전경. 푸른 하늘은 찾아볼 수 없다.  
밝게 웃던 정박사의 입가에 점차 미소가 사라진다.  
아빠의 시선을 쫓아 창 밖을 바라보는 단비.

단비    아빠, 예전엔 하늘이 푸른색이라고 했죠?  
정박사   그랬었지... 허나 지금 녹지는 파괴되고 황사는 더 심해졌어.  
          인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지.  
단비    푸른 하늘을 다시 볼 순 없나요?

잠시 생각하던 정박사가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모니터에 황색구름에 덮인 산봉우리가  
비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이뤄진 기이한 형상의 산봉우리다.  
모니터 속 산봉우리를 지그시 주시하며 회상하는 정박사.

정박사   아빠가 어릴 적 자주 놀러가던 곳이란다.  
          저곳은 파란하늘이 보이고 꽃들이 핀 천국 같은 곳이지.  
          아빠 저곳을 민들레 언덕이라 불렀어. 민들레꽃이 가득하거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신성한 곳이야.  
단비    어디예요? 저기가..  
정박사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 저 구름 속에..

단비가 창 너머를 바라보면 누런 구름이 질게 깔려 하늘이 온통 황토빛이다.

단비    안 보여요.  
정박사   이제 여기선 볼 수가 없어.  
단비    (실망스런) ... 아빠, 민들레 언덕에 가요.  
정박사   그건 안 돼. 거긴 고지대라 내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단비    저 이제 건강해요. 보세요. (체조하듯 몸을 움직여본다)  
          예전처럼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정박사   (고민한다)  
단비    (애교) 내 생일이잖아요. 어서요.

단비의 조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 흔드는 정박사.  
신나서 아빠의 팔을 잡아끄는 단비. 못 이기는 척 따라나서는 정박사.  
정신 차린 반디가 두 사람 위를 맴돌며 따라간다.

## #5 정박사의 연구소 비행출구 \_ 낮

동굴 같은 통로에 딱정벌레 형태의 양증맞은 비행선이 출발 대기중이다.

운전석에 앉은 정박사와 뒷좌석의 단비. 둘은 비행용 고글을 쓰고 있다.  
정박사가 단비에게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건넨다. 익숙하게 산소호흡기를 쓰는 단비.

정박사 껍 잡으렴~!

단비가 정박사의 허리를 껍 붙잡는다.  
정박사가 비행선을 발진시키자 마치 용수철처럼 슈웅- 튕겨져 나가는 비행선.  
정박사의 시점으로 터널 같은 통로가 빠른 스피드로 보인다.  
짜릿한 봅슬레이 경주를 하듯 스티일이 넘친다. 하얀 출구 구멍이 조그맣게 보인다.

## #6 정박사의 연구소 앞 \_ 낮

연구기지의 굴뚝처럼 생긴 출구에서 슈- 튀어나온 비행선이 창공을 날아오른다.  
세찬 바람을 맞으며 박사의 허리에 바짝 붙은 단비가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지상에  
남은 녹색지대를 내려다본다. 비행선이 바람을 가르며 황토빛 구름 속으로 멀어진다.

## #7 민들레 언덕 \_ 낮 ▶ 저녁

꺾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이뤄진 험준한 산봉우리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선이 갑작스레  
불어온 돌풍에 잠시 휘청한다. 겁이 난 단비가 정박사의 허리를 껍 껴안는다.

정박사 기류가 불안정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정박사의 말대로 돌풍은 금세 잠잠해진다.  
고지대라 산소호흡기로 숨 쉬는 단비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단비의 시점으로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절벽 위의 작은 평지 언덕.  
황색 구름 사이로 여태껏 보지 못했던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언덕엔 푸른 잔디와  
예쁜 빛깔의 민들레꽃이 가득 피어있다. 탄성이 터져 나오는 단비.

단비 저것 봐요! 하늘이 파래요!

정박사 (미소) 원래 하늘은 파랗단다.

타원을 그리며 유명하던 비행선이 언덕 잔디밭에 사뿐히 착지한다.  
정박사와 함께 비행선에서 내려 고글을 벗고 언덕을 둘러보는 단비.  
사방이 온통 풀잎과 민들레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언덕에 커다란 고목나무 한그루.

정박사 여기선 산소호흡기를 벗어도 괜찮아.

단비, 산소호흡기를 벗고 두 팔 벌려 불어오는 바람을 가슴 가득 받아들인다.  
신선한 공기에 표정까지 맑아지는 단비.  
신기하게도 언덕 위에만 태풍의 눈처럼 푸른 하늘이 보이고

언덕 밑으로는 황토빛 구름이 깔려있어 도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사막화된 도시 속에서 푸르름을 간직한 별천지 민들레언덕은 마치 현실이 아닌  
전설 속의 공간 같다.  
주머니에서 조그만 반디로봇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단비.  
반디가 날개를 확 펴서 빠르게 퍼득거리며 날아오른다.  
반디가 꼬리에 불빛을 반짝이며 단비 주위를 뱅뱅 돌다가 민들레꽃 사이를 신나게  
날아다닌다. 들떠있는 단비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회상에 잠기는 정박사.

인서트 - 정박사의 회상.

어린 소년(정박사)이 민들레 언덕의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종이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다. (관객은 그림을 볼 수 없다)  
그림을 그리는 소년의 표정에 설렘이 느껴진다.  
그림을 다 그린 소년이 일어나 커다란 고목나무를 향해 걸어간다.  
종이를 곱게 접어 고목나무 줄기에 파인 구멍 속에 소중히 집어넣는 소년.  
Dissolve

단비가 그 커다란 고목나무를 두 팔 벌려 안아보고 있다.  
어른 10명 정도가 두 팔을 뻗어야 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  
나무에 뺨을 댄 단비의 표정이 한없이 평화롭다.  
그런 단비의 시선에 고목나무의 구멍이 포착된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구멍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을 넣어보는 단비.  
단비의 손이 점점 어둠 속으로... 기대감 반 두려움 반으로 긴장된 단비의 표정.

정박사 (V.O) 이제 곧 어두워져! 어서 돌아가야지!

순간, 덜컥 겁이 난 단비가 구멍 속에서 손을 쑥 뺀다.  
비행선에 타고 있는 정박사에게 뛰어가 뒷좌석에 탑승하는 단비.  
단비의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반디.

단비    아빠, 저 나무에 구멍이 있어.  
정박사 (모르는 척) 그래?  
단비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정박사    그게 뭘까?  
단비    아빤 알고 있지?  
정박사    글썄... 그건 비밀이지.  
단비    나한테만 살짝 알려 주면 안 돼?  
정박사    비밀이라니깐.  
단비    (썰쭉) 너무해..

정박사, 웃으며 시동을 걸면 비행선이 슈웅- 날아오른다.  
잔잔한 배경음악 흐르면서 비행선이 황토빛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서정적 풍경.

하늘이 점점 짙은 황사로 뒤덮이며 타이틀 떠오른다.



타이틀, 황사처럼 풍화되어 흩날리며 사라진다.

#### - 오프닝 시퀀스

개구리 형상의 로봇을 조립하는 정박사와 카멜레온 형상의 로봇을 조립하는 마박사의 모습이 교차된다.

점점 빠르게 교차되면서 두 박사의 치열한 경쟁이 느껴진다.

#### #8 방송 몽타주

배경음악 계속 흐르며 뉴스방송이 몽타주로 흐른다.

- 국가 환경비상대책위에서 녹색지대를 훼손한 자는 엄중처벌 한다는 기자회견 장면
- 녹색지대에 무단침범한 자를 경비병들이 체포하는 장면
- 사막 화면. 석유에너지가 몇 년 안에 완전 고갈된다는 뉴스
- 석유 값 폭등으로 오랜 세월 방치되어 황사먼지에 뒤덮인 차량들
- 환경보호단체의 시위대와 대체 에너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대가 충돌한다.
-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정박사와 마박사를 인터뷰하는 여성앵커.

마박사는 머지않은 시일 내에 완벽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능함을 호언장담하고

정박사는 환경오염 극복을 호언장담한다. 두 박사에게서 느껴지는 팽팽한 신경전.

여성앵커가 촉망받는 두 박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멘트로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배경음악 엔딩. F.O

#### #9 정박사의 연구소 \_ 낮

F.I 커다란 실험용 유리상자 안에 개구리 형상의 로봇(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은 팬더곰 크기에 동그란 눈과 커다란 입, 표면은 광택이 나는 강철금속으로 이뤄져있다. 흥분된 표정으로 유리상자 속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정박사와 단비.

단비 뭐하는 개구리에요?

정박사 궁금하지? 잘 봐.

정박사가 버튼을 누르면 유리상자에 황사바람이 주입된다.

순식간에 유리상자 안의 공기가 황사로 누렇게 변한다.

그 순간, 공기오염을 감지한 프로그램의 눈에 불이 켜지며 큰 입을 찌익 벌린다.

숨죽인 채 지켜보는 정박사와 단비.

프로그램의 입이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쏘아악- 빨아들인다.

미세한 황사모래가 프로그램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꿈무늬에서 맑은 공기가 ‘푸식-’

뿔어져 나온다.

단비    개구리가 방귀를 끼요!

정박사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거란다.

순식간에 공기가 정화되어 맑아진 유리상자 안. 임무 완수한 프로그, 입을 닫는다.  
감탄하며 신기하게 바라보는 단비.

정박사   아직 끝이 아냐.

정박사가 다른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끈적끈적한 페오일이 유리상자 안에 주입된다.  
이를 포착한 프로그, 입을 벌리고 긴 혀를 쭉 내밀어 페오일을 넝름 집어삼킨다.  
몇 번 반복해 삼키자 페오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는 단비.

정박사   이 개구리가 네 소원을 들어줄 날이 멀지 않았어.

          네가 산소호흡기 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야.

단비    (감격스레) 고마워요, 아빠!

단비가 정박사의 품에 안겨 환한 미소 짓는다.  
날아다니던 반디가 유리상자 위에 내려앉는 순간, 프로그가 혀를 쭉 뺀어 덩석 삼키려한다.  
화들짝 놀란 반디가 다시 날아올라 항의하듯 앵앵거린다.  
능글맞게 입맛을 다시는 프로그. 두 로봇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는 정박사와 단비.  
Dissolve

## #10 마박사의 연구소 \_ 밤

뽕죽뽕죽 기이하게 생긴 마박사의 연구소 전경 위로 보름달이 떠있다.  
화면이 불 켜진 창문으로 쭉 들어가면 음산한 분위기의 연구실이 보인다.  
천정엔 음흉한 느낌의 검은 박쥐로봇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붉은 눈을 깜박인다.  
검은 가운의 마박사가 로봇 제작에 한창이다.  
완성되는 로봇은 계승츠레한 눈과 합죽이 턱, 긴 꼬리와 오돌토돌한 금속몸체를 가진  
길이 4m의 카멜레온 형태의 로봇(카멜)이다.  
환희에 찬 표정으로 카멜을 바라보는 마박사.

마박사   드디어 완성이다! 카멜이 생산하는 에너지 캡슐만 있으면 세상은  
          내 것이 된다. ㅎㅎㅎ...

박쥐로봇들이 축하하듯 일제히 마박사 주위를 날아다닌다.  
그러다 어리버리 두 박쥐로봇이 정면으로 부딪혀 실신,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마박사.

## #11 카멜 발표회장 \_ 낮

신차 발표회장 같은 화려한 원형무대에 카멜 로봇이 있고  
늘씬한 미녀 도우미가 카멜에 기대어 포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 주위로 취재진들이 북새통을 이룬다.  
카멜을 향해 셀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카멜이 눈동자를 360° 굴리며 장내를 훑어본다.  
옆 단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검은 정장차림의 마박사.

마박사 (마이크) 지금 보시는 신개념 로봇 카멜은 첨단로봇기술의 결정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녀 도우미가 청정폴잎을 카멜의 입 앞에 가져간다.  
후각을 감지한 카멜의 눈에서 빛이 나면서 입을 벌려 폴잎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  
숨죽인 채 지켜보는 취재진들.  
잠시 후, 카멜의 전신에 무지개 빛 칼라가 번뜩거린다.  
그 눈부신 광채에 취재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칼라 빛이 카멜의 전신을 한동안 훑고 지나가더니 쪽 내민 헛바닥에 캡슐 하나가  
툭 떨어진다. 호기심에 술렁이는 취재진들.  
도우미가 캡슐을 우아하게 집어 마박사에게 건넨다.  
마박사가 신비한 광채를 내뿜는 캡슐을 들고 취재진들에게 보인다.

마박사 이 캡슐은 고갈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자연과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의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취재진들에게서 탄성과 박수소리가 들려온다.  
의기양양한 표정의 마박사에게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고지식해 보이는 안경 쓴 기자 한 명이 뭔가 깨름직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든다.

기자 질문 있습니다!

마박사 말씀하세요.

기자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청정폴잎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순간, 발표회장에 탄성이 사라지고 싸~한 분위기로 돌변한다.  
하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는 마박사. 모든 취재진들의 이목이 마박사에게 집중된다.

마박사 자연이란 건 어차피 소비되면 재생산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조차 아깝다면 우린 결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곧 인류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죠.

자연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님 종말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치 교주처럼 카리스마 있는 연설로 청중들을 압도하는 마박사.

마박사의 연설에 수긍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어정쩡하게 서있는 기자가 자리에 앉는다.

플래시 세례 받는 카멜에게로 점점 다가가는 화면.

카멜, 살짝 음흉한 미소 짓는다.

## #12 녹색지대 관리본부 \_ 낮

사령관 복장의 관리대장이 마박사와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앉아있다.

속물 같은 관리대장이 팔짱을 낀 채 부정적인 자세로 마박사를 바라본다.

관리대장 녹색지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할 귀중한 자원인줄 모르오?

함부로 사용허가를 내줄 순 없소!

마박사 물론 그냥 허락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댓가로 대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릴 것입니다.

관리대장 내가 원하는 것..?

마박사 생산되는 대체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전 대체에너지 공급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죠.

녹색지대 사용허가의 댓가로 에너지수입금의 일정부분을 나눌 생각입니다.

부정적이던 관리대장의 표정이 서서히 관심을 보인다.

그 표정변화를 감지한 마박사, 자신만만하게 협상한다.

마박사 녹색지대 관리예산이 빠듯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죠.

그 자금이면 대장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관리대장의 흔들리는 표정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 짓는 마박사.

## #13 녹색지대 (Green zone) \_ 낮

녹색지대에서 풀잎을 뜯어먹는 카멜.

‘카멜로봇 탄생기념 녹색지대 일시개방’ 이라 적힌 광고판이 보인다.

시민들이 카멜을 둘러싸고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한 꼬마아이가 카멜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몸체를 어루만진다.

눈동자를 굴려 아이를 바라보는 카멜의 시선에 움찔 놀라는 아이.

카멜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히 풀을 뜯는다.

안심한 아이가 카멜을 쓰다듬고 부모가 기념 촬영을 한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와 카멜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다.

아이들 뿐 아니라 젊은 연인들도 카멜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카멜도 그런 시민들의 호응이 싫지 않은 듯 포즈를 취해 준다.  
취재 나온 카메라맨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

#### #14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마박사가 카멜의 시점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보며 대화한다.  
화면에서 턱수염을 기른 껌쪼쪼한 청년이 카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카멜이 청년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 화면에 그대로 비친다.

카멜 (E) (시니컬한 음성) 이 녀석 냄새.. 아주 역겨워 죽겠어.  
마박사 이봐, 넌 스타야. 시민들의 친구, 아이들의 우상이란 말야.  
저기 방송 카메라 보이지? 그 쪽으로 좀 더 친근한 포즈 부탁해.  
카멜 (E) 지금 나보구 쇼를 하라는 거야?  
마박사 스타가 되려면 쇼맨쉽도 필요한 거라구! 무슨 말인지 알아?  
카멜 (E) 맙소사!  
마박사 너의 쇼맨쉽에 환호하는 저 멍청한 사람들을 봐. 재밌지 않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야비한 미소를 흘리는 마박사.  
천정에 거꾸로 매달린 박쥐로봇들도 모니터를 바라보며 킁킁댄다.  
마박사 옆에서 지켜보는 소년 바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 #15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모니터화면에 앞 신의 카멜 뉴스가 흐른다.  
한 여성을 인터뷰하는 기자. 뒤로는 카멜을 만지는 아이들이 보인다.

기자 카멜을 직접 본 소감이 어떠세요?  
여자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집에 한 마리 키우고 싶네요.  
(뒤를 힐끔 보며) 우리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모니터로 지켜보는 정박사, 단비, 프로그램.

정박사 미쳤어... 얼마 남지 않은 자연마저 모두 없애겠다는 거야?  
언론플레이에 세상이 다 속고 있어.  
단비 그럼 파란 하늘을 영영 볼 수 없게 되나요?

걱정스런 눈빛의 단비를 바라보는 정박사, 착잡해진다.

정박사 걱정 마. 약속은 반드시 지킬테니. 프로그램!  
프로그램 (정박사를 바라본다)  
정박사 너가 자연의 파수꾼이 되어야겠다.

프로그 네, 주인님.

모니터 속 카멜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프로그.

#### #16 녹색지대 \_ 밤

어둠에 잠긴 녹색지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풀잎을 뜯어먹는 카멜의 동작이 늘어진 테잎처럼 서서히 느려진다.

인서트 - 카멜의 시점화면에 표시된 배터리 잔여량이 바닥상태다.

카멜의 눈동자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꺼지면서 동작이 멈춘다.

헝하니 부는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지만 카멜은 꼼짝도 안한다.

잠시 후, 달빛 하늘을 소리 없이 날아오는 무언가.

큰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오는 건 박쥐로봇이다.

붉은 눈의 박쥐로봇은 카멜의 등에 사뿐히 착지, 뽀족한 송곳니를 카멜의 등 작은 구멍(충전 투입구)에 푹 꽂는다.

인서트 - 배터리가 충전되며 잔여량이 쭉쭉 올라간다. '충전완료' 자막 뜬다.

임무를 다한 박쥐로봇, 송곳니를 뽑고 밤하늘을 날아 마박사의 연구실로 향한다.

카멜의 눈에 불빛이 켜지며 다시 풀잎을 뜯어먹는다.

#### #17 정박사의 연구소 \_ 밤

프로그의 등에 충전코드가 꽂혀 충전중이다.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이 투명해 눈동자가 그대로 보인다.

긴 여정을 위해 잠을 자는 듯 고요하다. F.O

#### #18 정박사의 연구소 앞 \_ 낮

F.I 연구소 문이 성문 열리듯 스르르 열린다.

문 앞에 서있는 정박사와 단비가 프로그를 진지하게 마주본다.

정박사 수칙 하나.

프로그 나는 환경의 파수꾼이다.

정박사 수칙 둘.

프로그 나는 반환경적 행동을 감시한다.

정박사 수칙 셋.

프로그 나는 환경 파괴자를 단호히 응징한다.

정박사 가서 카멜을 감시해줘.

프로그 네, 주인님.  
정박사 반디!

단비 손바닥 위의 반디가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박사의 눈앞으로 날아오른다.

정박사 프로그를 안내하렴.

반디가 알았다는 의미로 박사의 머리 위를 뱅뱅 맴돌다 날아간다.  
반디의 불빛을 따라 프로그가 폴짝폴짝 점프해 따라간다.  
움츠렸다가 점프할 때마다 50m 가량을 이동하는 놀라운 점프력이다.  
육중한 무게지만 착지할 땐 거의 소음 없이 황사먼지만 살짝 날린다.  
녹색지대로 향하는 반디와 프로그를 지켜보며 서있는 정박사와 단비.

단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박사 잘 될 거야. 프로그를 믿어.

#### #19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2.5m 크기의 올빼미 형태의 로봇(아울)을 완성시키는 마박사.  
크고 둥그란 두 눈, 뽀족한 부리, 커다란 날개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로봇이다.  
아들 바람이 곁에서 경계의 눈빛으로 아울의 탄생을 지켜본다.  
부리부리한 아울의 눈에 약간 겁먹은 듯 얼어있는 바람.

마박사 완성이다! 어떠냐? 멋있지?

마박사가 로봇을 작동시키면 둥그란 두 눈에 형광불빛이 켜진다.  
화들짝 놀란 바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는다.

마박사 하하하! 겁먹을 거 없어, 아들.  
바람 (영거주춤 일어나며) 정말요? 저 부리와 발톱... 웬지 무서워 보여요.  
마박사 이놈은 그냥 관측로봇인 걸. 절대 사납지 않아.  
그럼 아울의 위력을 보여주마. (명령) 카멜을 찾아!

아울이 고개 돌려 부리부리한 눈으로 창 너머를 주시한다.  
아울의 눈동자 동공이 확장되며 '위잉-' 낮은 기계음을 낸다.  
천리안처럼 수 Km 밖의 물체를 확 끌어당기는 아울의 시점 화면.  
녹색지대에서 풀을 뜯어먹는 카멜을 킁 줌-인해서 바라본다.  
마박사, 아울이 보는 시점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보며 흡족한 미소 짓는다.

마박사 카멜, 어때? 풀잎이 입맛에 맞아?  
카멜 (E) 배터리 좀 제때 챙겨줘. 죽을 뻔 했잖아.

마박사 녀석, 시니컬하긴... 아ؤل, 니가 카멜의 천리안이 되어야겠다.  
카멜에게 날아가라!

아ؤل이 접은 날개를 펴자 제법 큰 날개가 확 펼쳐진다. 움찔 놀라 물러서는 바람.  
처음이라 잠시 서툰 날개짓을 하더니 서서히 날아오른다.  
아ؤل의 거대한 날개짓에 천정에 매달린 박쥐로봇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뜩 경계한다.  
창문 너머로 퍼득거리며 날아가는 아ؤل을 탐욕스런 미소로 바라보는 마박사.  
바라보는 바람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있다.

## #20 녹색지대 가는 길 \_ 낮

황사바람을 뚫고 날아가는 반디의 힘찬 날개짓.  
반디의 불빛을 따라 점프하는 프로그램이 멈춰 황색 도시를 둘러본다.  
모랫바람에 침식된 빌딩들, 흉물스럽게 말라비틀어진 나무들, 황사먼지로 뒤덮인  
고철이 된 차량 등 모든 게 참담한 광경이다.  
반디가 갈 길을 재촉하듯 프로그램의 머리 위를 맴돈다.  
하지만 웬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  
공기오염도를 감지한 프로그램의 눈에 불이 켜지고 입을 찌억 벌리더니 공기를 가득  
들여 마신다. 황사 공기가 프로그램의 커다란 입속으로 ‘쵸아악~’ 빨려 들어간다.  
그 강력한 흡입력에 반디까지 프로그램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하자 열나게  
날개짓 해 안간힘으로 버티는 반디, 우스꽝스럽다.  
프로그램의 꿈무니로 정화된 바람이 뿜어져 나온다.  
한참 공기를 마신 프로그램이 흡입을 멈추자 거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 한 반디가  
프로그램의 눈앞에서 맴돌며 항의하듯 앵앵거린다.  
하지만 능글맞은 프로그램은 아무 반응 없이 뱃속에서 걸러진 모래들을 뱉어낸다.  
토해낸 모래가 한가득 언덕을 이룬다.  
모래 언덕 위에 내려앉아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쬈여보는 반디.  
무시하듯 ‘꺼억~’ 트림하는 프로그램.

## #21 녹색지대 \_ 낮 ▶ 밤

앞 신의 프로그램과 반디의 모습이 아ؤل의 시점 화면으로 보여진다.  
모래식사를 마친 프로그램이 반디를 따라 놀라운 점프력으로 튀어온다.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유심히 지켜보는 아ؤل의 부리부리한 눈.  
나무 아래에선 카멜이 풀잎을 게걸스레 뜯어먹고 있다.

아ؤل     골치 아프게 됐는데.

포식을 멈추고 아ؤل을 올려다보는 카멜.

카멜     (걸걸한 음성) 뭐야, 식사 중에..

아울     훼방꾼이 오고 있어.

카멜이 눈알을 굴려 훑어보면 프로그램이 경중경중 점프해 오는 것이 보인다.  
신경질적으로 표정을 찡그리는 카멜.  
반디를 따라 카멜 앞으로 점프해 착지하는 프로그램.  
반디가 아울 옆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크기 차이가 나는 아울과 반디가 마주본다.  
아울의 동그란 형광눈빛이 위협적인 듯 반디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  
아울이 겁주려고 커다란 발로 나뭇가지를 툭 치자 반디가 흔들림에 떨어졌다가 날아올라  
다시 제자리에 앉는다. 겁먹은 걸 감추려 오히려 당당한 포즈 취하는 반디.  
기선제압에 성공한 아울이 음흉한 미소 짓는다.  
땅에선 프로그램과 카멜이 마주보며 기싸움을 벌인다.

카멜     (달갑지 않은) 너 뭐하는 놈이야?  
프로그램   나? 모래요정.

프로그램이 입을 짹 벌려 스읍- 공기를 가득 마신다.

프로그램   음~ 여긴 공기가 양호한데.  
카멜     꺼져! 여긴 내 구역이야!  
프로그램   내 구역? 이거 왜 이래. 나도 국가의 허락받고 왔어.

카멜과 프로그램이 강렬하게 마주본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나뭇가지 위의 아울과 반디, 아래의 상황을 흥미롭게 내려다본다.

아울     누가 이길 거 같아? 난 카멜에게 올인!  
반디     (놀리듯 입술피리를 날린다) 뿌우우웅~  
아울     (발끈해 눈이 더욱 커진다) ...!!!!...

아래 상황. 프로그램을 노려보는 카멜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공격자세를 취한다.  
프로그램과 카멜의 눈빛이 교차되면서 고조되는 긴장감.

프로그램   난 신경 끄고 하던 일 계속하셔~

충돌을 피하려는 듯 한발 물러서는 프로그램.  
긴장감이 풀어지며 위에서 지켜보던 아울의 표정도 맥빠진다.  
카멜이 신경질적으로 나무를 타고 성큼성큼 기어오른다.  
그 충격에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반디, 불안해진다.  
능숙하게 나무 위를 오른 카멜이 나뭇가지의 잎을 뜯어먹는다.  
나무에 오르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깔보듯 내려다보며 우걱우걱 잎을 씹는 카멜.  
Dissolve

시간경과. 붉은 노을이 지고 어두워진다.  
나무 위 카멜과 나무 아래 프로그, 박제된 듯 앞 신과 똑같은 포즈로 대치한다.  
어두워지면서 아울은 형광눈빛이 더욱 선명해진 반면 반디는 졸린 눈이다.  
카멜과 프로그의 팽팽한 신경전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는 아울.  
영원히 굳어있을 것만 같던 카멜이 나뭇가지에 휘감은 꼬리를 중심으로 시계추처럼  
회전한 탄력으로 사뿐히 내려온다.  
마치 철봉에서 회전하며 착지하는 체조선수처럼 유연하게..  
그리곤 어디론가 어기적 기어가는 카멜.

프로그 어디가?

카멜 (뚝 멈추더니 뒤로 눈알을 굴려) 알 것 없잖아.

다시 기어가는 카멜의 뒷모습을 미심쩍게 바라보는 프로그.

프로그 반디!

나뭇가지에서 반디가 졸리던 눈을 부릅뜨고 쪼르륵 날아와 프로그의 눈앞에 맴돈다.

프로그 카멜을 계속 감시해줘.

반디가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프로그 눈앞에 맴돌더니 카멜을 쫓아 핵- 날아간다.

나뭇가지에서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아울의 동그란 눈.

## #22 녹색지대 외곽 \_ 밤

어두운 녹색지대 외곽. 카멜이 주위를 경계하며 외진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기어온다.

그 뒤를 몰래 날아와 감시하는 반디.

사막용 차량 한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나가자 자세를 낮추는 카멜.

차량 헤드라이트가 카멜을 훑고 지나간다.

카멜, 주위를 살피더니 배설하는 자세를 취한다.

풀잎으로 에너지원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기관으로 배출하는 카멜.

석유 같은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

흐르는 검은 액체를 따라 이동하는 화면.

식물이 액체에 닿자 금새 시들어버린다. (유독한 액체임을 알 수 있다)

클로즈업된 반디의 눈동자가 ‘좌르르르-’ 빙글빙글 돌아간다.

## #23 정박사의 연구실 \_ 밤

반디가 전송하는 시점화면이 모니터에 비춰진다.

카멜이 유독액체를 몰래 배출하는 장면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단비.

정박사는 예상한 듯 덩덤한 척 하지만 애써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정박사 저 놈, 마박사를 아주 빠다 박았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단비 녹색지대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어떡해요?  
정박사 카멜의 만행을 막아야지!

#### #24 녹색지대 \_ 밤

프로그의 두뇌 속에서 액세스 된 반디의 시점화면 - 카멜이 몰래 배출하는 유독액체가  
식물을 시들게 만드는 화면이 펼쳐진다.

프로그 수척 셋. 나는 환경 파괴자를 단호히 응징한다.

프로그의 두뇌에 네비게이션 맵이 펼쳐지고 위치를 검색한다.  
맵 상에서 반디의 위치를 확인한 프로그, 꺾충 점프한다.  
프로그가 점프할 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나뭇가지 위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아울의 눈동자.

#### #25 녹색지대 외곽 \_ 밤

검은 액체를 다 배출하고 시원하단 표정 짓는 카멜, 주위를 살피며 어기적 자리를 뜬다.  
그 순간, 펄쩍 튀어온 프로그가 카멜 앞에 쿵-! 착지한다.  
움찔하다가 이내 뻘뻘한 표정으로 돌변하는 카멜.  
프로그의 시선이 유독액체에 처참하게 시들은 식물을 포착한다.

카멜 뭐야, 너! 스토키야? 왜 자꾸 따라와? 귀찮게.  
프로그 녹색지대가 너 때문에 파괴되고 있어.  
카멜 난 인간을 위해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어.  
인류는 내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단 걸 명심해.  
프로그 자연이 망가지면.. 희망도 없다.  
카멜 니가 뭐 상관이야!  
프로그 난 청정자연의 파수꾼이다.  
카멜 파수꾼? (비웃으며) 그래봤자 넌 날 못 이겨. 켈켈...

카멜이 위장술로 어둠 속에 완벽하게 묻힌다.  
프로그가 당황스런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지만 보이지 않는 카멜의 꼬리에 퍽-!  
한방 얻어맞는다. 프로그, 아무리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다.  
두 방! 세 방!! 카멜의 연속타가 작렬하고 휘청하는 프로그.  
보이지 않는 카멜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카멜 (소리만) 호호호호...

프로그 반디!

프로그 위로 날던 반디가 꼬리의 불빛을 최대한 밝게 밝힌다.  
그 빛에 의해 주변이 환해져 위장한 카멜이 밝은 풀잎이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기회를 포착한 프로그가 강력히 점프, 카멜의 옆구리를 머리로 세차게 들이박는다.  
쿵-!! 그 충격에 카멜이 본래색으로 돌아와 수풀 위에 나뒹군다.  
옆구리에 움푹 패인 부상을 당한 카멜, 웅크린 채 표정이 일그러진다.  
공격자세를 늦추지 않고 대치하는 프로그.

카멜 너 이놈, 각오해.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니..

카멜이 분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쳐 슬슬 도망간다.

프로그 반디, 고마워. 너 제법이구나.

반디가 우쭐대며 승리를 자축하는 공중 퍼레이드를 펼친다.  
반디의 꼬리불빛이 밤하늘에 공중곡예를 하며 생쏜을 한다.  
반디의 재롱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프로그.

## #26 정박사의 연구실 \_ 밤

정박사와 단비가 프로그의 활약상을 반디의 시점화면을 통해 모니터로 보고 있다.  
절룩거리며 어기적 도망가는 카멜의 뒷모습.  
환호성을 지르는 단비와 진중한 표정의 정박사.

단비 (통쾌) 멋지게 한 방 먹였네요!

정박사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단비 네?

정박사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을 거야.

단비 (들뜬 표정 가라앉으며) 그럼.. 어떡해요?

정박사 프로그를 보호할 호위로봇을 만들어야겠어.

단비 호위로봇..?

## #27 마박사의 연구실 \_ 밤

부상당한 카멜을 살펴보는 마박사. 옆에서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바람.  
카멜의 옆구리가 부딪힌 충격으로 흥측하게 일그러져있다.  
고통스레 그르렁~ 소리를 내뿜는 카멜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마박사.

마박사 이게 다 정박사 때문이야. 정의로운 척 하는 그 꼴을 더 이상은 못  
참아! 반드시 복수할 테다!!

바람    그만뒤요, 아버지!

마박사   뭐?

바람    그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라구요!

마박사   무슨 소리야! 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고 있는 거야.

         니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 뜻을 이해 못하겠지만..

바람    솔직해지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바람, 반항기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심란한 표정으로 서있는 마박사의 인상이 구겨진다.

## #28 바람의 방 \_ 밤

방으로 들어온 바람이 문을 쿵 닫는다.  
 마박사가 만들어준 기상천외한 로봇들로 가득한 방.  
 멀거니 서서 벽에 걸린 사진 액자들을 훑어보는 바람.  
 어릴 적 꼬마아이인 바람이 아빠가 선물해준 공중부양 슈퍼보드,  
 터보 엔진이 장착된 스케이트 등을 타고 신나게 노는 사진들.  
 사진 속 바람은 지금보다 훨씬 해맑고 아빠와 사이도 좋아 보인다.  
 밝게 웃는 사진 속 마박사를 바라보는 바람의 착잡한 눈빛.

바람    (혼잣말) 아빤... 너무 변했어..

## #29 단비의 방 \_ 낮

창가에 서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단비.  
 동그란 망원경 시점으로 풀이 죽은 바람의 모습이 창 너머로 보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단비의 표정도 가라앉는다. 단비의 머리 위를 땀도는 반디.

단비    (혼잣말)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마박사님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야..

반디    저 남자애 좋아하는 거 맞지?

단비    (뜨끔, 아닌 척) 그, 그런 거 아냐. 난 저런 스타일 별로야.

반디    거짓말.

단비    진짜라니까!

반디    근데 왜 동공이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져?

단비의 신체적 변화를 꿰뚫고 있는 반디. 단비, 당황스러워 얼굴이 화끈거린다.

단비    (심통) 아빤 왜 쓸데없는 기능까지 개발한 거야, 정말!

반디    왜 혈압이 급상승하는 거지?

단비 (버럭) 너 때문이라구! 너!!

### #30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카멜의 찌그러진 표면금속을 해체하고 더욱 견고한 초강금속을 입히는 작업하는 마박사.  
완성된 카멜은 겉보기에도 더욱 견고해 보인다.  
마박사가 테스트를 위해 두꺼운 금속판을 카멜 앞에 세워둔다.

마박사 카멜, 저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 어떡할 거지?

카멜이 눈에 불을 켜고 질주할 자세를 취한다.  
순간적으로 달려와 머리로 금속판을 사납게 들이박는 카멜.  
‘깡——!!’ 두꺼운 금속판이 카멜의 머리 형태대로 구겨졌다.  
별것 아니라는 듯 우쭐하게 고개를 까딱거리는 카멜.  
더욱 강력해진 카멜을 흡족한 미소로 바라보는 마박사.

### #31 녹색지대 \_ 낮

녹색지대를 삼엄하게 순찰하는 경비병 한명.  
경비병이 풀숲에서 뭔가 시커먼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간다.  
검고 끈적한 액체 주변으로 식물이 시들어있는 광경에 의아한 경비병, 장갑 낀 손으로  
액체를 한 줌 뜬다.  
손바닥 위 액체의 냄새를 맡아보며 유심히 살피던 경비병, 갑자기 경악한다.

경비병 으아아아악-!!

검은 유독액체가 마치 염산처럼 장갑을 부식시키며 타들어간다.

### #32 마박사의 연구실 \_ 밤

불 꺼진 연구실에 정적이 흐른다.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든 마박사.  
모니터엔 녹색지대에서 풀잎을 뜯어먹는 카멜의 모습이 아울의 적외선 시점화면으로 비쳐  
지고 있다. 이때 천정에 거꾸로 매달린 박쥐로봇 중 박쥐3호가 붉은 눈을 번쩍 뜬다.  
박쥐3호, 잠든 마박사를 확인하더니 소리 없이 날개짓 해 창가로 날아간다.  
뽕족한 송곳니로 창문을 조심스레 여는 박쥐3호.  
‘끼이익-’ 창문 여는 소리에 몸을 뒤척이는 마박사.  
동작을 멈추고 눈치를 살피는 박쥐3호, 더 이상 인기척이 없자 열린 창으로 날아간다.

### #33 녹색지대 \_ 밤

보름달 떠있는 밤하늘에 소리 없이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오는 박쥐3호.

녹색지대 나무에 아울이 앉아있고 아래엔 카멜이 풀잎을 뜯어먹고 있다.  
적막 속에 박쥐3호가 카멜의 등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마치 소리 없는 닌자처럼.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카멜과 아울.  
박쥐3호, 카멜의 머리 부근을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송곳니로 투입구를 열고  
두뇌 칩을 은밀하게 빼내려한다.  
이상한 느낌에 머리를 살짝 흔드는 카멜. 움찔하며 부동자세를 취하는 박쥐3호.  
카멜이 눈알을 굴려 살펴보지만 등 뒤에 붙어있는 박쥐3호를 발견하지 못한다.  
카멜의 움직임이 멈춘 후 다시 시도하는 박쥐3호.  
그 순간, 나무 위 아울의 시선에 박쥐3호 포착된다. 더욱 커진 아울의 눈.

#### #34 마박사의 연구실 \_ 밤

열린 창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한기를 느낀 마박사가 잠에서 깨어난다.  
열려있는 창문을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는 마박사.  
모니터 화면에 카멜의 등에 밀착해 두뇌 칩을 빼내려는 박쥐3호가 아울의 시점화면으로  
비춰진다. 당혹스런 마박사.

마박사 아울! 왜 보고만 있어! 저 놈 지금 카멜의 칩을 훔치려는 거야!

#### #35 녹색지대 \_ 밤

박쥐3호의 송곳니가 카멜의 두뇌 칩을 물고 끌어당기려는 순간을 목격하는 아울.  
아울이 발톱을 세우고 박쥐3호에게 날아간다.  
이를 눈치 챈 박쥐3호, 몸을 카멜의 등에 완전히 밀착시킨다.  
아울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슬아슬하게 박쥐3호를 비껴간다.  
위기를 모면한 박쥐3호, 서둘러 카멜의 두뇌 칩을 빼내려한다.  
다시 유턴해 날아오는 아울.

마박사 (E) 카멜! 자네 등 뒤에 적이 있어!

사태를 알아챈 카멜이 거칠게 몸부림쳐 보지만 악착같이 버티는 박쥐3호.  
카멜이 날아오는 아울을 향해 박쥐3호가 매달려있는 등을 내보인다.  
동시에 아울의 발톱이 박쥐3호를 낚아채고 바닥에 짓누른다.  
아울의 발밑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몸부림치는 박쥐3호.  
카멜이 다가와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본다.

#### #36 마박사의 연구실 \_ 밤

아울의 발밑에 깔려있는 박쥐3호를 모니터를 통해 주시하는 마박사.

마박사 칩을 훔치려한 이유가 뭐야?

박쥐3호 (E) 난 아무것도 몰라.  
마박사 누가 시킨 것이야?  
박쥐3호 (E) 그런 기억 없다.

아울이 육중한 체중을 실어 박쥐3호를 짓누른다. 고통스런 괴성을 지르는 박쥐3호.

마박사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시켰어?  
박쥐3호 (E) ... 모른다.

완강하게 버티는 박쥐3호를 껌씹하게 노려보는 마박사.  
마박사가 컴퓨터로 박쥐3호의 두뇌 기록을 파헤쳐보면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나타난다.  
침입자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교묘히 위장해 왔다.  
누구의 짓인지 감을 잡는 마박사가 씩씩한 표정 짓는다.

마박사 (냉혹하게) 아울, 처리해.

아울이 발로 박쥐3호를 힘껏 움켜쥔다.  
강한 압력에 처참하게 일그러지는 박쥐3호를 강렬하게 바라보는 마박사.  
모니터에서 박쥐3호의 고통스런 괴성이 들린다.

### #37 바람의 방 \_ 밤

마박사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면 컴퓨터를 조작하던 바람이 다급히 등 뒤에  
모니터를 가리며 일어선다.  
홍분상태의 마박사가 바람을 차갑게 바라본다. 지지 않고 마주보는 바람.

마박사 너지? 카멜을 제거하려한 게.  
바람 (모른 척) 카멜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마박사 박쥐3호를 조종해 침을 빼내려한 게 너지? 그렇지?  
바람 .....  
마박사 대답해!

바람이 대답 없이 버티자 확 밀쳐내고 모니터를 보는 마박사.  
모니터 화면에 마박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화면이 뜬다.  
마박사의 철통같은 보안시스템을 뚫고 로봇 컨트롤 시스템을 장악한 것이다.  
설마 했는데... 충격에 휩싸이는 마박사.

마박사 왜 그랬어?  
바람 아버지 욕심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범행이 들통 났지만 오히려 더 당당한 바람.

화가 치민 마박사가 바람의 뺨을 짝- 후려친다.  
고개가 돌아간 바람. 때린 마박사도 맞은 바람도 고통스럽다.  
반항끼 가득한 눈빛으로 마박사를 쏘아보는 바람.

마박사 잘못했다고 말해.  
바람 (버틴다) .....  
마박사 어서!  
바람 저, 후회 안 해요. 전 인류를 위한 일을 한거라구요.  
마박사 (발끈) 너, 이 자식...  
바람 아버지, 제 방에 얼마 만에 들어온 줄 아세요?  
마박사 .....  
바람 (냉소) 이런 일이 아니면 저랑 얼굴 마주칠 일이 없죠?  
내게 관심도 없으니까... 난 그저 아버지 야망의 걸림돌일 뿐이니까..  
마박사 그만해!!  
바람 (아빠의 서슬에 기가 질린다)  
마박사 너한테 아빠가 겨우 그 정도였니?  
바람 .....  
마박사 아들...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마박사, 힘없이 뒤돌아 아들의 방을 나간다.  
바람, 착잡한 얼굴로 창 너머를 바라보면 멀리 불 켜진 정박사의 연구소가 보인다.

### #38 정박사의 연구실 \_ 밤

유리상자 안에 든 각양각색의 곤충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정박사.  
천적관계의 곤충은 서로 쫓고 쫓기고... 대등한 곤충은 서로 공격한다.  
팔짱을 낀 채 어떤 호위로봇을 만들지 신중하게 구상하는 정박사.

### #39 단비의 방 \_ 밤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마박사의 연구소를 살펴보는 단비.  
둥그란 망원경 시점화면이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마박사의 창문을 지나 소년 바람의  
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불 켜진 창에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

단비 응? 이상하다... 어딜 갔지?

조금 더 확대되는 망원경 화면에 불쑥 나타나는 커다란 눈동자.  
화들짝 놀란 단비가 망원경을 내리면 바로 창 너머에 바람이 있다.  
UFO처럼 생긴 개인용 비행선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바람.

단비 깜짝이야!

바람    놀란 건 나야. 왜 자꾸 흠쳐봐?  
 단비    (뜨끔) 내가 언제...  
 바람    나한테 관심 있어?  
 단비    (괜히 발끈) 누가 관심 있대?  
 바람    우리, 얘기 좀 할래?  
 단비    (내심 좋지만 내색 앓으며) 곤란한데... 아빠가 알게 되면..  
 바람    걱정 마. 잠시면 돼. 어서.

단비,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창을 넘어간다.  
 단비의 돌출행동에 반디가 경계하듯 불빛을 점멸시키며 사납게 맴돈다.

단비    반디! 가만있어!

단비의 호령에 반디가 풀이 죽어 얄전해진다.  
 단비의 손을 잡아주는 바람이 비행선 뒷자리에 태운다.

바람    내 허릴 꼭 잡아.

수줍게 쭈뼛거리다가 바람의 허리를 슬며시 붙잡는 단비.  
 바람이 레버를 당기면 비행선이 밤하늘로 날아오른다. 뒤쫓아 날아가는 반디.  
 연구실 불 켜진 창으로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호위로봇 연구에 몰두하는 정박사의 모습이 보인다.

#### #40 창공 \_ 밤

밤하늘을 유연하게 날아가는 바람의 비행선이 바람을 맞으며 황색구름으로 날아간다.  
 반디가 비행선과 경쟁하듯 지지 않고 따라붙는다.  
 바람의 허리를 어정쩡하게 잡은 단비의 손.  
 바람, 장난삼아 비행선을 급상승시키면 깜짝 놀란 단비가 바람의 허리를 꼭 붙든다.

단비    (심통) 운전이 왜 이래? 너 무면허지?  
 바람    재밌잖아. 롤러코스터 좋아해?  
 단비    아니! 정말 정말 싫어해.  
 바람    강한 부정은 긍정인거 알지? 자 간다~  
 단비    엄마아아아~

바람, 장난스런 얼굴로 레버를 당기면 비행선이 롤러코스터 마냥 공중회전하며 날아간다.  
 그 위로 들리는 단비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

#### #41 고층빌딩 옥상 \_ 밤

모래바람에 흉물스럽게 침식된 고층빌딩 옥상에 나란히 앉아있는 바람과 단비.  
단비의 머리카락이 폭탄 맞은 것처럼 우스꽝스런 산발이 되었다.  
보름달 아래로 어둠에 잠긴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있다.  
곡예비행으로 열이 병병한 단비의 머리 위를 땀도는 받디.

바람    팬찮아?  
단비    내가 팬찮아 보여?  
바람    (머쓱) 미안... 가슴이 답답해서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었어.  
단비    경찰은 뭐하나? 폭주족 안 잡아가고..

마주보며 피식 웃음을 터트리며 단비와 바람.

바람    난 바람이라고 해. 넌?  
단비    난 단비.  
바람    단비... 예쁜 이름이네.  
단비    고마워. 너도 멋진 이름이야.

산소호흡기를 쓰고 숨 쉬는 단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바람.

바람    그 호흡기 벗으면 안 돼?  
단비    모래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람    (안쓰럽다) 세상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어.  
          좀 더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쓰고 다녀야 할 거야.  
단비    (우울한 눈빛) .....  
바람    난 아버지가 싫어.  
단비    (바라본다)  
바람    아버진, 에너지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결국 아버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연이 다 죽어버린다면... (고개 절레절레) 난 이해할 수 없어.  
단비    (공감하는 눈빛)  
바람    두 분이 친구 사이였던 거 알아?  
단비    정말?  
바람    응. 우연히 아버지 사진을 본 적 있어.

인서트 - 마박사의 방에 들어서는 바람.

책상서랍 속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바람.  
젊은 청년, 정박사와 마박사가 과학대학시절 함께 로봇을 만드는 모습이 컷으로  
보여진다. 단순한 벌레로봇에서 진화된 로봇까지 서로의 작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며 찍은 사진들. 로봇 발명대회에서 정박사가 1위, 마박사가 2위를  
차지해 나란히 찍은 기념사진도 보인다. 그 위로 바람의 음성.

바람 (V.O) 그 시절,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자였는데 지금은...(말끝 흐려진다)  
어쩌면 아버진 열등감을 느꼈는지도 몰라.  
아버진 정박사님의 빛에 가려 늘 2인자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

다시 현재. 회상에 잠긴 바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단비.

바람 아버진 처음과 달리 발명하는 로봇들이 점점 과격하게 변해갔어.  
그래야만 정박사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한숨) 이대론 희망이 없어. 자연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거야.  
단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바람 (무기력)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어.  
난 아버지 뜻을 꺾을 힘이 없는걸...  
단비 (실망스런 표정)  
바람 단 하나, 길은 있어.  
단비 그게 뭔데?

바람, 황사로 뿌연 야경을 내려다보며 결연한 표정 짓는다.

바람 정박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기는 거... 그것만이 희망이야.

안타까운 눈빛으로 마주보는 바람과 단비.

어둔 밤, 옥상에 앉아있는 둘의 롱 숏. 반디의 불빛이 단비의 머리 위를 맴돈다.

#### #42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프로그의 호위로봇을 만드는 정박사.

반질거리는 견고한 블랙메탈의 몸체가 하나씩 맞춰지면 강력한 집계를 가진

사슴벌레로봇(비틀)이 완성된다. 집계에서 몸길이가 5m에 육박하는 대형 로봇이다.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는 비틀을 보며 흡족한 미소 짓는 정박사, 완성된 비틀의 집계성능 테스트를 위해 비틀 앞에 어른이 겨우 안을 정도 굵기의 통나무를 놓는다.

얼핏 보기에 견고해 보이는 통나무.

공격목표를 포착한 비틀, 눈에 불을 켜고 통나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 #43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정박사와 경쟁하듯 불꽃을 튀기며 새로운 공격로봇을 만드는 마박사.

황금색 메탈의 집계, 몸체, 다리, 날카로운 침을 가진 꼬리가 맞춰지면

3m 길이의 황금색 전갈 로봇(스콜)이 완성된다.

마박사가 스콜을 작동시키자 매서운 눈에 붉은 빛이 켜진다.

양손 집계를 딱딱거리며 말려있는 긴 꼬리를 치켜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스콜.

날카로운 꼬리침을 드러낸 자태가 위협적이다.

마박사 (자아도취) 오호~ 뷰리폴~

마박사가 성능실험을 위해 유리상자 안에 스쿨과 실험용 귀뚜라미로봇을 대치시킨다.  
마주보는 스쿨과 귀뚜라미로봇. 귀뚜라미로봇은 스쿨의 절반정도 크기이다.  
매서운 눈빛으로 기선제압 하는 스쿨. 겁에 질려 굳어버린 귀뚜라미로봇.  
빠르게 착착착- 다가온 스쿨이 꼬리를 치켜든다.  
스쿨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에 도망갈 엄두도 못내는 귀뚜라미로봇.  
스쿨, 집게발로 귀뚜라미로봇을 붙잡고 꼬리를 머리 앞으로 뻗어 침을 귀뚜라미의 등에 내리꽂는다. 순간 꼬리침에서 6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른다.  
‘지이이이-’ 고압전류에 감전된 귀뚜라미로봇 몸체가 순식간에 검게 그을린다.  
부속품이 땅가져 귀뚜라미로봇 눈의 불빛이 꺼지며 작동이 멈춘다.  
스쿨의 가공할 위력에 흡족한 미소 짓는 마박사.

#### #44 녹색지대 가는 길 \_ 낮

모래 위를 기어가는 비틀. 점프 후 한동안 비틀을 기다리는 프로그.  
영금영금 기어오는 비틀을 못미더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프로그.  
그 위를 땀뿜며 날아가던 반디가 나뭇가지에 앉아 내려다본다.  
반디, 지루한지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프로그 이봐, 너 정말 내 호위로봇 맞아?

비틀 그러엄.

프로그 호위로봇이라면 뭔가 강력하고.. 날렵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냐?

비틀 날 못 믿겠다는 거야?

프로그 너처럼 둔해빠진 녀석이 어떻게 날 호위하냐 말야.

비틀 어떡하면 날 믿을래?

프로그 실력을 보여줘.

비틀 좋아. 그럼 이걸 언제?

(속삭인다) 저기 나무 위의 반디를 떨어뜨려볼까?

프로그 (어림없다는 듯) 너처럼 굶픈 애가 무슨 수로..

비틀 (자신만만) 잘 보라구.

비틀,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갑자기 두더지처럼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인서트 - 모래 속에서 집게로 파헤치며 거침없이 전진하는 비틀.

나무뿌리 밑에서 파고 나온 비틀이 빠른 속도로 나무기둥을 타고 올라간다.  
육중한 몸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와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나뭇가지에서 사라진 비틀을 찾는 반디.  
소리 없는 닌자처럼 반디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는 비틀.

인서트 - 신# 42. 정박사의 연구실에서 비틀의 성능 테스트 장면에서 계속.  
공격목표인 통나무를 향해 천천히 기어가던 비틀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지더니 집게를 크게 벌려 통나무를 끼운다.  
집게의 엄청난 압력에 덩강- 두 동강 나는 통나무.

비틀이 강력한 집게로 반디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덩강 자른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함께 떨어지는 반디, 화들짝 놀라 열나게 날개짓 한다.  
지면에 닿기 일보직전 가까스로 날아오르는 반디. ‘쿵-’ 바닥에 떨어지는 나뭇가지.

프로그 오~ 제법인데~

보기보다 날렵하고 강한 비틀의 성능에 감탄하는 프로그.  
나무에 붙어있는 비틀이 포효하듯 집게를 확- 펼쳐 멋진 포즈를 선보인다.  
봉변을 당할 뻔 한 반디는 항의하듯 비틀 주위를 앵앵거리며 맴돈다.

#### #45 녹색지대 \_ 낮

나뭇가지에 앉아 앞 신의 상황을 주시하는 아울의 눈동자가 ‘좌르르르——’ 돌아간다.

#### #46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유리상자 안 모래 위에서 적응훈련중인 스콜에게 전송되는 아울의 시점화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를 단숨에 부러뜨리는 비틀의 활약상이 재생된다.  
스콜, 가소롭다는 표정 지으며 화면을 향해 꼬리침을 치켜들고 위압적인 포즈 취한다.

#### #47 녹색지대 \_ 낮

카멜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아울이 나뭇가지 위에서 망을 보고 있다.

아울    혜방꾼이 한 놈 더 늘었는데..  
카멜    뭔 소리야?  
아울    새로운 녀석, 만만찮아. 조심해.  
카멜    ...???...

카멜이 눈알을 굴려 살피면 멀리서 프로그와 비틀이 반디의 안내로 다가온다.  
이를 본 카멜, 인상을 찡그리며 풀잎을 잘근잘근 씹는다.  
카멜을 감시하듯 가만히 지켜보는 프로그와 비틀. 그 위를 맴도는 반디.

카멜    이봐. 난 합법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중이거든.  
          신경 쓰이니까 저리 꺼져!

무시하듯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프로그램과 비틀.

카멜    내 말 안 들려? 그만 감시하란 말야!

여전히 반응 없는 프로그램에 화가 난 카멜이 성큼성큼 기어온다.  
가까이 마주보는 카멜과 프로그램. 여차하면 공격할 태세의 비틀.

인서트 - 모래 위 낮은 자세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스콜.  
          모래색과 비슷한 황금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대치하는 카멜, 프로그램, 비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프로그램   녹색지대를 계속 파괴한다면 너의 비리를 폭로하겠어.  
카멜    (시치미) 무슨 비리?  
프로그램   기억 안 나? 좋아. 기억나게 해주지. 반디!

프로그램 위를 맴돌던 반디가 꼬리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 홀로그램 영상을 재생한다.  
예전에 카멜이 유독액체를 몰래 배설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당황하는 카멜.

프로그램   이 영상을 세상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의 이중적인 정체는 탄로 나겠지. 이 위선자!  
카멜    (발끈)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느네들 스토키야? 파파라치야?  
프로그램   자연의 파수꾼이라 불러줘.  
카멜    나 성질 불같거든. 날 화나게 만들지 마.

카멜,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하지만 옆에서 경계하는 비틀을 의식해 덤비지 않는다.  
카멜이 나무 위를 힐끗 보면 아울이 작전상 눈짓을 보낸다.  
스멀스멀 다가오는 스콜을 알아챈 카멜, 지원군의 등장에 득의양양해진다.

카멜    (스콜에게) 녹색지대에 온 걸 환영하네, 친구.

카리스마 넘치는 스콜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는 프로그램과 비틀.  
프로그램과 비틀, 카멜과 스콜의 2:2 대결구도.  
나뭇가지 위의 아울과 반디가 심판처럼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다.  
조심스레 탐색전을 펼치는 네 로봇들.  
프로그램가 순간적으로 점프해 박치기를 시도해보지만 쥘싸게 피하는 카멜.  
두 번 당할 순 없다는 듯. 카멜이 방심한 프로그램의 목을 긴 꼬리로 꺾 조인다.  
발버둥치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켉켉대는 프로그램.

비틀, 집게를 벌려 카멜의 꼬리를 자르려하자 카멜이 꼬리를 재빨리 풀어 후려친다.  
비틀, 공격하려다 카멜의 강력한 꼬리치기에 되려 중심을 잃고 뒤집어진다.  
바닥을 드러낸 채 전복된 비틀, 버둥거리지만 좀처럼 뒤집지 못한다.  
비틀의 약점이 탄로 난 것이다!  
기회를 포착한 스콜, 전복된 비틀에게 착착착- 재빨리 다가와 꼬리를 위협적으로  
치켜들고 고압전류 침을 내리꽂으려 한다.  
그 순간, 프로그가 재빨리 점프해 비틀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다시 뒤집는다.  
스콜의 꼬리침이 흙바닥에 푹 꽂히지만 무사히 피한 비틀.  
프로그를 쫓아본 스콜이 집게발을 딱딱거리며 섬뜩하게 다가간다.  
프로그가 피하려 점프하는 순간, 뒤에서 카멜의 꼬리가 프로그의 다리를 휘감는다.  
잠깐 떠올랐던 프로그가 고삐에 걸린 듯 바닥으로 쿵-! 떨어진다.  
피할 수 없는 프로그에게 점점 다가오는 스콜. 절망적인 프로그의 눈빛.  
스콜이 꼬리를 치켜들고 침을 내리꽂는 순간, 몸을 날린 비틀이 대신 감전된다.

프로그 비틀-!!

‘과지직-’ 고압전류가 비틀의 몸체를 휩쓸고 간다.  
비틀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프로그와 반디.  
치명적인 감전으로 한동안 경련을 일으키는 비틀.  
화면이 비틀의 몸체 속으로 급속도로 파고 들어가면 호위로봇에 걸맞게 설계된  
자동복구장치를 통해 회복되는 메카닉이 보여진다.  
비틀을 제압한 스콜, 이번엔 프로그를 공격하려 다가온다.  
카멜의 꼬리에 다리가 묶여 달아날 수 없는 절박한 프로그.

카멜 켈켈켈... 잘 가, 이 애송이야.

꼬리를 치켜세우는 스콜, 위기의 프로그가 입을 짹 벌려 걸려진 모래를 뚝- 내뱉는다.  
분사된 모래가 스콜의 눈에 묻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발광하는 스콜이 프로그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꼬리침을 내리꽂는데 계속 아슬아슬하게  
빗겨간다. 꼬리침이 정확히 프로그를 향하는 순간, 완전 회복된 비틀이 집게로 톱 막더니  
스콜의 꼬리를 덩강 자른다.  
도마뱀 꼬리 잘리듯 쏙뚱 잘려나간 스콜의 꼬리가 꿈틀거리며 고압전류를 발산한다.  
꼬리침 없는 스콜은 이빨 없는 호랑이와 마찬가지.  
앞을 볼 수 없고 꼬리마저 잘린 스콜은 집게발을 마구 휘저으며 최후의 발악을 한다.  
비틀이 집게로 스콜의 집게발마저 덩강- 잘라버린다.  
이제 아무런 공격무기도 갖지 못한 스콜은 평범한 벌레로봇으로 전락해 버렸다.  
전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카멜이 프로그 다리를 풀어준다.

카멜 느네들, 운 좋은 줄 알아.

카멜, 분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숲 속으로 사라진다.

프로그 팬찮아?

비틀 그러엄. 짜릿한 경험였어.

프로그 니가 날 살렸어. 고마워.

비틀 난 너의 호위로봇이잖아.

프로그와 비틀, 마주보며 호뭇한 표정 짓는다.

반디가 승리를 자축하듯 프로그와 비틀 위를 불을 밝히며 맴돈다.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응시하는 아울의 동그란 눈동자가 ‘좌르르르-’ 돌아간다.

#### #48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모니터를 통해 프로그, 비틀의 한판승을 지켜본 정박사와 단비가 환호성을 지른다.

단비 (들뜬) 우리가 이겼어요, 아빠!

정박사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프로그와 비틀의 환상의 콤비야!

단비 마박사도 이제 우리 로봇을 앞잡아보진 못하겠지.

정박사 그래. 허나 방심하면 안 돼. 저렇게 위협적인 공격로봇을 만들다니..

또 어떤 로봇을 만들지 예측할 수 없어.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 정박사의 신중한 눈빛.

#### #49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마박사와 바람이 아울이 전송해온 앞 신의 전투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다.

표정이 잔뜩 일그러진 마박사. 바람은 내심 통쾌함을 느끼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모니터화면에서 비틀이 집게로 스콜의 꼬리를 자르는 장면이 비춰진다.

화면 속 비틀을 노려보는 마박사의 분노에 찬 눈매.

마박사 저 녀석.. 부셔버리겠어!

천정에 거꾸로 매달려있는 박쥐로봇들이 ‘뿌셔-! 뿌셔-!’ 주절댄다.

복수심에 타오르는 아버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바람.

#### #50 녹색지대 \_ 낮

지상에 내려온 반디가 잘려진 채 꿈틀대는 스콜의 꼬리에 조심스레 다가간다.

호기심 어린 반디,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슬며시 꼬리에 발을 갖다 대본다.

순간, 꼬리에 아직 잔류해있던 고압전류에 ‘파지직——’ 감전되는 반디.

시커멓게 탄 반디가 해롱해롱 비틀거리는 우스꽝스런 광경에 웃는 프로그와 비틀.

다른 상황. 집게발과 꼬리를 잘리고 앞을 볼 수 없게 된 스콜은 몰려온 까마귀떼에게 부리로 쪼이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자존심 센 스콜 체면에 미칠 노릇이다.

#### #51 마박사의 연구소 앞 \_ 밤

연구소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있는 마박사.  
카멜이 패전병처럼 의기소침하게 기어와 마박사 앞에 멈춘다.  
마박사, 분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카멜을 바라본다.

마박사 기운 내.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 곧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

카멜, 의아하게 바라보면 필승전략을 가진 장수처럼 의미심장한 표정 짓는 마박사.

#### #52 과학수사연구소 건물 앞 \_ 낮

첨단 건축물 전경. 자막 - 과학수사연구소

#### #53 과학수사연구소 분석화학실 \_ 낮

하얀 가운의 연구원에게 유리병을 건네는 선글라스 쓴 녹색지대 경비대장.  
연구원이 유리병을 손에 들고 들여다보면 검고 끈적한 액체가 들어있다.

연구원 이게 뭐니까?  
경비대장 녹색지대에서 채집한 겁니다.

경비대장이 둥글게 구멍 뚫린 가죽장갑을 꺼내 보인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연구원.

경비대장 보세요. 이 액체가 뚫은 겁니다.  
연구원 ...!!!!...

놀란 연구원의 얼굴이 구멍 뚫린 장갑 너머로 보인다.

연구원 엄청나네요..  
경비대장 이 액체는 녹색지대에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어디서 배출된 건지 밝혀내야하니 성분을 분석해 줘요.  
연구원 네. 분석 후 통보드리겠습니다.

경비대장이 나간 후, 연구원이 호흡기를 쓰고 흰 장갑을 낀다.  
유리병 뚜껑을 열고 소량의 액체를 조심스레 꺼내어 현미경 유리판에 놓는 연구원.  
현미경 렌즈를 들여다보는 연구원의 눈동자.  
현미경 시점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끈적거리는 검은 액체.

순간 깜짝 놀라는 연구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다시 한 번 현미경 렌즈를 들여다보는 연구원.

#### #54 마박사의 연구실 \_ 밤

화면 가득 커다랗게 보이는 눈동자.  
화면이 뒤로 빠지면 돋보기 렌즈에 비친 마박사의 눈임을 알 수 있다.  
돋보기안경을 쓰고 뭔가 세밀한 작업을 하는 마박사. (로봇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독기를 품은 마박사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더 매섭다.  
마박사의 시점으로 확대된 로봇은 좁쌀 크기의 벼룩로봇이다.  
작업이 완료되고 한숨 돌리는 마박사. 옆에 웅크려있는 카멜이 힐끔 쳐다본다.  
마박사가 벼룩을 작동시키면 눈에 불을 켜고 통통 튀어 오른다.  
처음엔 몸길이의 10배 정도 가볍게 튀다가 100배, 1000배 이상 튀어 오르는 놀라운 점프력을 보여준다.  
마박사가 벼룩의 두뇌프로그램에 뭔가 명령을 내린다.  
벼룩은 마박사의 지시대로 카멜에게 튀어가 몸체의 미세한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간다.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카멜.  
잠시 후 카멜의 몸을 빗내던 광채가 사라지더니 두 눈의 빛마저 소멸된다.  
작동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린 카멜. 이를 보며 음흉한 미소 짓는 마박사.  
이 모든 실험광경을 연구실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는 바람.

#### #55 마박사의 연구소 앞 \_ 낮

마박사가 손바닥 위에 올려진 벼룩로봇을 돋보기안경 너머로 보며 야심찬 미소 짓는다.  
마박사, 입김을 후~ 불자 날려간 벼룩로봇이 놀라운 점프력으로 통통 튀어간다.  
녹색지대로 향하는 벼룩의 시점화면이 자이드롭을 하듯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  
멀리 모래 위 프로그와 비틀의 모습이 보인다.

#### #56 도심 \_ 낮

입을 짹 벌린 채 여유롭게 황사공기를 흡입하는 프로그.  
프로그의 큰 입속으로 ‘썩아악——’ 빨려 들어가는 황사모래.  
겉에서 신기하게 지켜보는 비틀과 그 위를 맴도는 반디.

**비틀** 세상의 공기를 다 마시려구?  
**프로그** 못할 거 없지.  
**비틀** (심심) 그 동안 난 뭐하지? 악의 축도 사라졌는데.  
**프로그** (놀리듯) 넌 힘쓰는 거 빼면 할줄 아는 게 없지?  
**비틀** (발끈) 뭐? 말 다했어!  
**프로그** 워워~ 진정해.  
**비틀**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힘만 켜고 쓸모없단 소리야. 알아?

프로그 사실이잖아. 나처럼 자연을 살리는 것 두 아니구..  
반디처럼 날아다니지도 못하구.. 니 날개는 폼으로 달았니?  
**비틀** (폭발) 너 나랑 한판 뜨자. 텀벼!  
프로그 또 힘자랑.  
**비틀** 야-!!

모래바람을 마시던 프로그, 갑자기 쿵쿵쿵 거친 기침을 해댄다.

프로그 너 뱀에 사래 걸렸잖아! 나 작업 중인 거 안보여?

비틀, 뽀로통한 표정으로 시무룩해진다.

인서트 - 프로그를 향해 통통 튀어가는 벼룩의 시점화면.

프로그가 다시 모래바람을 흡입하는 순간, 튀어오던 벼룩도 함께 쑥 빨려 들어간다.  
뭔가 이상한 듯 입을 닫고 짹짹거리는 프로그.

프로그 뭐지? 이 왕건의 느낌은...

인서트 - 벼룩이 프로그의 두뇌로 침투, 바이러스를 퍼트려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프로그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더니 뜬금없이 풀잎을 뜯어먹는다.

**비틀** (병~) 왜 그래, 너?  
프로그 풀잎 맛있어... 내 사랑 풀잎... 짹짹..  
**비틀** 너 미쳤어?  
프로그 모래 싫어.. 풀잎 조아... 음냐..

나사 빠진 행동을 하는 프로그를 황당하게 바라보는 비틀과 반디.

## #57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 밤

정박사, 컴퓨터로 프로그 두뇌의 시스템오류 원인을 살핀다.  
어이없게도 프로그의 큰 입에 풀잎을 뜯어먹은 흔적이 묻어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단비. 그 위를 날아다니는 반디.  
모니터 화면에 '시스템오류 원인불명' 자막이 깜박인다.

단비 왜 이런 거죠?  
정박사 글썄.. 자체 버그인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몇 번을 반복해서 점검해 봐도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어 난감해지는 정박사.

Dissolve

깊은 밤까지 프로그램 시스템오류점검에 여념이 없는 정박사.  
모니터 화면에 프로그램의 명령체계가 암호처럼 떠있다.  
명령체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정박사.  
누군가가 교묘히 명령체계를 망가뜨려 놓았다.  
침입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놨지만 범인에 대한 직감이 스치는 정박사의 표정.

정박사 (혼잣말) 마박사... 프로그램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때, 정박사가 간지러운 듯 미간을 실룩이며 손가락으로 귀를 후빈다.  
망가진 명령체계를 유심히 살피던 정박사, 잠시 후 갑자기 압박을 받은 듯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한다. 점점 창백해지는 정박사의 얼굴.  
프로그램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는 정박사, 결국 의식을 잃은 채 모니터 앞에 엎어진다.

#### #58 녹색지대 \_ 아침

날이 밝아오면서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아울의 동공이 축소된다.

#### #59 정박사의 연구실 \_ 아침

어젯밤 그대로 프로그램의 명령체계가 떠있는 모니터 앞에 엎드려있는 정박사.  
대형모니터가 켜지며 주방에서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단비의 모습이 비친다.  
국을 끓이며 요리하던 단비가 화면을 향해 소리친다.

단비    아빠, 아침식사~  
정박사 (미동도 없다) .....  
단비    아빠! 밤 샌 거야? 얼른 식사하고 자요~

계속 반응 없는 정박사. 불길한 직감의 단비, 표정이 굳어진다.  
모니터화면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프레임 아웃 하는 단비.  
잠시 후 문을 벌컥 열고 달려온 단비가 정박사를 흔든다.

단비    아빠... 아빠!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정박사. 덜컥 겁이 나는 단비.

단비    (점점 애원조로) 아빠, 일어나! 장난치지 마, 아빠!  
이런 게 어딴어.. 약속했잖아. 파란세상을 보여준다 했잖아.. 아빠!

반응 없는 정박사를 끌어안고 애타게 흐느끼는 단비. 그 위를 구슬프게 땀은 반다.

## #60 병원 응급실 \_ 낮

병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정박사의 바이탈사인을 체크하는 40대 담당의사가 이미 늦었다는 안타까운 표정 짓는다.

## #61 병원 응급실 앞 복도 \_ 낮

적막한 복도의 의자에 홀로 앉아 울먹이는 단비.  
머리 위를 맴돌던 반디가 위로하듯 단비의 떨리는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응급실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나온 담당의사, 단비를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옆에 앉는다.

단비 (눈물 글썽이며) 의사 아저씨, 우리 아빠가 왜... 왜..?  
담당의 돌연사인데... 심장마비로 추측돼. 인공심장에 오류가 생긴 거 같아.  
단비 인공심장?  
담당의 몰랐어? 마박사님의 작품였는데...  
단비 ...!!!!...  
담당의 지금은 대체에너지 로봇개발에 전념하시지만 10년 전만 해도  
디지털 인공장기 분야에 권위 있는 분이셨어.  
마박사님이 정박사님의 생명을 연장시킨 셈이지.

인서트 - 플래시 백. 10년 전 회상.

병원침대에 누운 정박사를 바라보는 인공장기 담당의 마박사.  
10년 젊은 두 사람은 현재와 달리 친한 친구처럼 보인다.  
상체를 벗은 정박사가 수술자국이 남은 심장 쪽을 바라본다.

마박사 니 심장은 첨단 테크놀러지로 뛰고 있어.  
정박사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킨 거야?  
마박사 일부러 끄지 않는다면 심장은 반영구적으로 뿔 거야.  
(농담조로) 이거 배 아픈데... 나보다 훨씬 오래 살겠는걸.  
정박사 (농담조로) 날 완전 사이보그로 만들어 놔잖아.  
마박사 까불면 확 꺼버릴 거야~ 심장.  
정박사 뭐? (가슴 내밀며) 그래, 꺼라. 꺼.

장난스레 마주보며 껄껄 웃는 두 사람.

다시 현재. 담당의사의 얘기를 듣는 단비,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있다.

단비 디지털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이 자주 있나요?  
담당의 희박한 확률이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끈 게 아니라면 운이 나빴다고 할 수 밖에.

단비의 젖은 눈빛이 깊은 슬픔에 잠긴다.

## #62 정박사의 연구소 앞 \_ 낮

정박사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단비는 검은 옷에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다.  
조그만 타임캡슐에 담긴 정박사의 유골을 동그란 비행정 속에 넣는 단비.  
유골캡슐이 삽입되자 뚜껑이 닫히고 발진해 로켓처럼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정.  
반디가 아쉬운 듯 비행정을 따라 날아오르다 이내 포기하고 내려온다.  
끝없이 하늘로 치솟는 비행정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단비.

단비    안녕... 아빠...

단비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또로록 흘러내린다. 그 위를 구슬프게 맴도는 반디.  
멀리서 단비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바람, 힘없이 고개를 떨군다.

## #63 우주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광활한 우주로 향하는 유골함 비행정.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온통 뿌연 황색이다.  
별빛이 찬란한 우주공간을 정처 없이 유영하는 비행정, 점차 멀어진다.  
Dissolve

## #64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행한 느낌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는 단비.  
작동이 멈춘 프로그램 등 정박사가 생전에 개발한 온갖 로봇들이 주인을 잃은 채 멈춰있다.  
모니터엔 고쳐지지 않은 프로그램의 명령체계가 그대로 떠있다.  
박사의 유품함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 드는 단비.  
폴밭에서 메뚜기를 손가락에 쥐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정박사의 어린 시절 사진.  
단비, 그리움에 사무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유성이 포물선으로 떨어진다.  
이때, 비행선을 탄 바람이 창가에 불쑥 나타난다.

단비    (놀라며) 바람!

바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 창문을 여는 단비.

단비    웬일이야?  
바람    (진지하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단비    뭔데?  
바람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

단비 음.. 들어와.

바람이 좁은 창으로 간신히 들어오다가 발을 헛디더 휘청한다. 반사적으로 붙드는 단비.

단비•바람(화들짝 놀라) 어어어..!

기우뚱한 바람, 단비와 함께 침대 위로 벌렁 넘어진다.

예기치 않게 껴안은 두 사람, 몸을 일으켜 어색하게 쭈뼛거린다. 그 위를 맴도는 반디.

반디 동공이 커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졌다.

단비 (뜨끔) 반디, 조용히 해!

반디 (조용해진다) .....

바람 (무안) 미안해..

단비 ..... 할 말 있단 게 뭐야?

바람 정박사님 소식은 유감이야. 있잖아, 이건 내 추측인데...

정박사님 죽음이 벼룩로봇과 관련 있을지 몰라.

단비 벼룩로봇?

바람 프로그램이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건 벼룩로봇 때문이야.

벼룩로봇은 로봇내부에 침투해 명령체계를 망가뜨려.

카멜에게 실험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단비 그게 정말이야?

바람 응. 만약 벼룩로봇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단비 (놀란다) ...!!!...

석연치 않는 눈빛으로 마주보는 단비와 바람.

눈앞에서 맴도는 반디를 본 단비, 무언가 생각난 듯

단비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바람 응?

단비 반디가 밤새 박사님과 함께 있었어!

단비와 바람, 동시에 반디를 바라본다.

단비 반디, 어젯밤 영상을 보여줘!

반디의 꼬리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 홀로그램 영상을 재생한다.

반디의 두뇌에 저장된 기억을 되살린 입체영상을 지켜보는 단비와 바람.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정박사를 부감으로 내려다보는 반디의 시점화면.

작업에 몰입한 박사의 화면을 유심히 응시하는 두 사람.

잠시 후 정박사의 미간이 실룩거리더니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후빈다.

바람    뭔가 이상해..... 방금 그 장면, 한 번 더 보여줘.

반디가 줌 전 화면을 다시 재생한다.

반복해서 볼수록 뭔가 인위적인 자극을 받은 듯 한 정박사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바람    (석연찮은) 박사님 얼굴을 확대해줘.

정박사의 얼굴이 확대된 화면에서 무언가가 컷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인다.

바람    귀 부분만 클로즈업 해줘!

반복 재생. 정박사의 귀를 극단적으로 확대해보면 컷속으로 들어가는 건.. 벼룩로봇이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자 허탈해지는 바람.

바람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충격으로 굳어진 단비의 얼굴에 직감이 스친다.

단비    아버진 인공심장이셨어. 저 벼룩로봇이 인공심장으로 가서  
작동시스템을 파괴한 거야!

바람    그래! 디지털 인공심장은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어!  
그러니 작동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겠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기술까지도...

분노에 찬 눈으로 입체영상을 바라보는 단비. 죄책감에 고개 떨구는 바람.

바람    미안해... 우리 아버지, 너무 비겁했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바람이 주먹을 불끈 쥔다. 슬퍼하는 단비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반디, 서서히 분노한다.  
반디, 갑자기 모니터 속 정박사 화면 앞에서 사납게 맴돌더니 창문 너머로 획- 날아간다.

단비    반디! 어디가? 돌아와!

반디의 돌출행동에 어찌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단비와 바람.

## #65 도심 \_ 낮

반디의 시점화면으로 날아다니며 지상을 훑어보는 화면.

반디는 날아다니면서도 지상의 물체들을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는 놀라운 시력을 가졌다.  
갑자기 불어 닥친 거센 황사폭풍에 몸 가누기도 힘들지만 비행을 멈추지 않는 반디.  
이때, 지상에서 미세한 무언가가 툭툭 튀어가는 것이 포착된다.

반디, 급 하강해 가까이 다가가면 그 물체는 바로 벼룩로봇이다!  
반디가 복수하려는 듯 벼룩을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아울의 거센 날개짓에  
조그만 반디가 폭풍이라도 맞은 것처럼 밀려난다.  
아울이 벼룩을 구하러 녹색지대에서 날아온 것이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반디, 다시 벼룩을 향해 날아가는데 아울이 커다란 날개를  
휘저어 반디를 내리친다.  
크기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인 반디는 그 충격에 지상으로 곤두박질친다.  
아울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반디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낙하한다.  
모래언덕 위로 떨어지는 반디. 아울이 반디를 잡으려는 순간, 쿵! 무언가에 부딪혀  
튀겨나가는 아울. 비틀이 반디를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린 것이다!

**비틀** 반디! 괜찮아?

반디가 괜찮다는 의미로 힘겹게 날개짓을 해 보인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아울, 독기를 품고 비틀을 향해 급강하한다.  
먹이를 포착한 맹수처럼 거침없이 날아오는 아울.  
비틀은 피할 틈 없이 반디를 몸체 아래에 감싸고 보호한다.  
아울이 발톱으로 비틀의 몸체를 낚아채 다시 하늘로 비상한다.  
몸부림쳐 보지만 뒷에 걸린 듯 아울의 발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틀.  
비틀의 보호로 남겨진 반디가 안타깝게 바라보며 날개짓 해 보지만  
날개의 상처 때문에 날아오르지 못한다.  
빌딩 사이를 휘저으며 날아가던 아울, 투포환 던지듯 빠르게 뱅뱅 돌더니  
그 원심력 그대로 빌딩을 향해 비틀을 힘껏 내던진다.  
빌딩에 부딪히면 폭발해버릴 위기상황!  
하지만 비틀은 안정된 자세로 충격을 흡수하며 빌딩 벽에 착지한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고층빌딩에 착- 붙어있는 비틀.  
작전실패한 아울이 다시 날아오고 비틀이 집계를 벌려 공격자세를 취한다.  
날아오는 아울과 반격하려는 비틀의 시점화면이 빠르게 교차된다.  
노련한 아울이 발톱으로 비틀의 벌린 집계를 획- 낚아채고 날아간다.  
공격무기인 집계를 잡힌 채 위태롭게 매달려가는 비틀.  
아울은 모래언덕 위를 아슬아슬 날아가며 비틀에게 모래세례를 먹인다.  
붕긋붕긋 솟아오른 모래언덕들이 비틀의 시점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모래언덕과 연속적으로 부딪히는 충격에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비틀, 속수무책이다.  
반격의 에너지를 상실한 비틀을 데리고 아울이 멀리 날아간다.

## #66 고철 폐기장 \_ 낮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고철 폐기장.  
폐기된 로봇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인부들 역시 열에 강한 로봇들이다.  
폐품 처리된 기계와 구형 로봇들이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어떤 로봇은 가라앉으며 터미네이터처럼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 #67 고철 폐기장 지붕 \_ 낮

날아온 아울이 고철폐기장 지붕 위 굴뚝에 내려앉는다.  
아울의 발에 집게를 잡힌 채 위태롭게 매달린 비틀.  
기진맥진한 비틀을 보며 회심의 미소 짓는 아울.

아울     다음엔 더 강한 로봇으로 태어나길.. 후훗... 미스터 굼벡이, 잘 가~

아울이 서서히 발에 힘을 빼면 굴뚝 속으로 떨어지는 비틀 - 슬로우 모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비틀을 야비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아울이 날아오른다.

## #68 고철 폐기장 굴뚝 속 \_ 낮

꼬불꼬불한 굴뚝 속을 롤러코스터 마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비틀.  
에너지가 소진된 비틀, 안간힘을 다해 날개짓 해보지만 모래에 의해 손상된 날개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비틀의 안타까운 날개짓이 계속된다.  
비틀의 시점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굴뚝 아래로 뜨거운 용광로의 열기가 후끈 느껴진다.  
절망이 스쳐가는 비틀의 표정.

## #69 고철 폐기장창공 ▶ 민들레 언덕 \_ 낮

하늘 높이 마음껏 비상하는 아울.  
황색구름에 덮인 신비스런 산을 포착한 아울이 산봉우리를 향해 힘껏 날아오른다.  
깎아지르는 절벽을 날아가던 아울, 갑작스레 불어온 돌풍에 밀려난다.  
어디서 부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바람이다.  
아울이 돌풍에 밀려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를 쓰며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  
드디어 산봉우리의 평지에 다다르자 언제 불었냐는 듯 바람이 잔잔해진다.  
마치 다른 세상인 듯 파란 풀잎과 민들레꽃이 만발한 언덕을 유영하는 아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 #70 도심 \_ 낮

부상당한 반디가 모래언덕에 쓰러져있다.  
이때, 반디의 시야에 통통 튀어오는 벼룩로봇이 보인다.  
벼룩이 반디의 몸체로 파고들면 끝장이다!!  
벼룩이 점점 다가올수록 위기감에 반디가 날개짓 해보지만 날아오르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는 반디, 벼룩이 거의 근접할 즈음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힘겹게 날아오르는 반디, 이때 튀어 오른 벼룩이 반디의 몸체에 찰싹 달라붙는다.  
기겁한 반디가 스크류처럼 회전한다.  
떨치려는 반디와 끈질기게 붙어서 반디의 몸체 속으로 파고들어가려는 벼룩.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반디가 전동드릴 같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자 벼룩이 견디지 못하고 ‘으악~’ 단말마 비명과 함께 떨어져나간다.  
모래 위에 떨어지는 벼룩을 바라본 반디, 상처투성이 몸으로 투혼을 다해 날아간다.

## #71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새로운 로봇개발에 몰두중인 마박사.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바람이 굳은 표정으로 마박사에서 성큼성큼 다가온다.

바람    소식 들었죠?  
마박사    뭘 말이나?  
바람    정박사님이 살해당하셨어요.  
마박사    (태연히) 살해당한 게 아니라 심장마비야. 정박사는 원래 심장이 약했어.  
          인공심장으로 생명이 연장됐던 것 뿐야.  
바람    아버지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 다 알아요!  
마박사    (발끈) 누가 그 따위 소릴 해!  
바람    벼룩로봇이 정박사님 껏속으로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마박사    ...!!!!...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한 마박사. 차갑게 쏘아보는 바람.

바람    아무리 경쟁자지만 한때 친구였던 그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박사    (애써 변명) 그건 내 뜻이 아냐. 벼룩로봇 스스로 판단한거야.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바람    변명하실 거 없어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던 바람, 행하니 연구실을 나간다.  
딩그러니 서서 심란한 표정 짓는 마박사.

마박사    박쥐1호!

천정에 매달려있는 박쥐1호가 눈에 붉은 불빛을 켜고 마박사에게 퍼드득 날아온다.

마박사    바람을 지켜봐.

박쥐1호가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 끄덕이고 연구실 문밖으로 날아간다.  
이때, 모니터에 녹색지대 관리대장의 성난 얼굴이 비친다.

관리대장    마박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박사    (바라본다) 무슨 일이시죠?  
관리대장    녹색지대에서 발견된 검은 액체 말야, 카멜의 배설물로 밝혀졌어!

마박사 그래서요?

관리대장 그래서라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에너지 생산의 댓가로 유독물질을 방출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녹색지대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네. 당장 카멜을 철수시켜!

마박사 (당당히) 그럴 수 없습니다.

관리대장 뭐야?

마박사 대체에너지 개발로 가장 특혜를 보신 분이 바로 대장님 아닙니까.

관리대장 (찢린다) 이봐,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좋게 해결하자는 거야.

언론이 자넌 살렸지만 다시 죽일 수도 있어. 내 말 된 뜻인지 알지?

모니터 속 관리대장과 마주보는 마박사의 입가에 조소어린 미소가 번진다.

마박사 카멜을 녹색지대로 데려가는 건 제 의지지만 추방하는 건 제 의지로  
안 됩니다. 로봇에겐 스스로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관리대장 (괘씸)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다면 최후통첩이네.

카멜을 살리고 싶다면 내 말을 듣고, 거부한다면 공권력으로 추방하겠네!

마박사가 모니터 속 관리대장을 강렬하게 응시한다.

## #72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창가에서 창 너머를 바라보는 단비, 아빠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이 사무친다.

이때, 하늘 저 멀리서 작은 점이 조금씩 다가온다.

유심히 바라보는 단비의 눈이 커진다. 휘청거리며 날아오는 그것은... 반디다!

힘겹게 날아온 반디가 기력이 다 소진된 듯 창문에 툭 부딪혀 떨어진다.

단비가 창문을 열고 반디를 두 손바닥에 담아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손바닥 속 반디는 상처투성이에 꼬리에서 꺼질 듯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다.

단비 반디! 어떻게 된 거야?

반디가 마지막 작별인사 하듯 천천히 날개를 움직인다.

꼬리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며 눈을 감는 반디. 최후의 날개짓이 멈춘다.

단비 반디!... 반디!!

아빠의 마지막 선물인 반디를 애타게 부르는 단비.

아무 반응 없는 반디를 품에 안고 울먹인다.

## #73 녹색지대 관리본부 \_ 낮

회의실에 관리대장과 경비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앉아있다.

선글라스 쓴 건장한 체격의 경비대장은 중요한 사항을 직감하고 관리대장을 주시한다.  
회의실 문 앞에 보안요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경비대장 전할 말씀이..

관리대장 카멜을 녹색지대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네.

경비대장 네?

관리대장 카멜이 반환경적 행위를 했네.

카멜의 배설물은 식물에게 치명적인 유독성을 지녔어.

경비대장 그럴 수가...

관리대장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 환경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을 거야.

미리 그 불씨를 꺼야 해.

경비대장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도 카멜의 대체에너지 때문  
아닙니까?

관리대장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

지금 카멜은 녹색지대를 황폐화 시키는 암적인 존재일 뿐야.

결연한 눈빛으로 마주보는 두 사람.

#### #74 녹색지대 경비대 본부 \_ 낮

선글라스 쓴 경비대장이 부동자세로 서있는 경비병들 앞에서 연설중이다.

경비대장 지금 이 시간부터 카멜은 더 이상 녹색지대와 공생관계가 아니다!

카멜을 녹색지대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명한다!

허나 선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카멜은 언제든지 살인로봇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만약 카멜이 순순히 따르지 않고 위협을 가한다면... 파괴해도 좋다!

경비대장의 연설을 듣는 경비병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비장함으로 변해간다.

경비대장 자, 가서 녹색지대를 사수하라!

경비병들 (우렁차게) 네!

경비병들이 헬멧을 쓰고 광선총으로 무장, 사막용 경비대 차량에 일제히 탑승한다.

엔진 시동음... 바라보는 경비대장의 선글라스에 출동하는 경비대 차량이 비춰진다.

#### #75 녹색지대 앞 \_ 낮

모래 위에 멈춰서는 경비대 차량. 문이 열리면 경비병들이 신속하게 하차한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녹색지대 안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경비병들.

경비병들이 광선총을 겨누며 낮은 자세로 수풀에 은폐해 다가간다.  
수풀 사이로 풀잎을 뜯어먹는 카멜이 보인다.  
상관이 눈신호를 보내자 경비병들, 사격자세를 취한다.  
정적 속에 광선총의 총구가 카멜을 향한다. 방아쇠를 당길 듯한 손가락.  
경비병들이 숨죽인 채 상관의 사격신호에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비대 상관, 벌떡 일어나 카멜에게 외친다.

상관 카멜! 널 이시간부로 녹색지대에서 철수할 것을 명한다!  
카멜 (쳐다보며) 날 추방해? 무슨 이유로?  
상관 넌 녹색지대 특별보호법을 위반했다!  
녹색지대를 오염시켰어! 지금 당장 여길 떠나라!  
카멜 어림없는 소리. 이곳의 주인은 바로 나야. 감히 누가 날 내쫓아?  
상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널 파괴할 수도 있다!  
카멜 저리 꺼져! 난 식사시간에 방해받는 거 딱 질색이란 말야.

상관, 더 이상의 협상을 포기한 듯 비장한 표정 짓는다.  
상관이 사격 수신호를 보내자 수풀 속에서 튀어나와 광선총을 겨누는 경비병들.  
풀잎을 뜯어먹던 카멜이 놀라 달아난다. 일제히 발포하는 경비병들.  
경비병들이 쏜 광선이 도망치는 카멜에 아슬아슬하게 빗겨 맞고...  
광선에 맞은 나무가 검은 재로 변해 흩날린다.  
카멜을 쫓으며 광선총을 쏘는 경비병들. 위급한 카멜, 위장술로 위장한다.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카멜에 어리둥절해하며 두리번거리는 경비병들.  
카멜의 시점화면으로 경비병들에게 슬금슬금 다가가지만 알아채지 못한다.  
한 경비병이 보이지 않는 카멜의 강력한 꼬리치기에 ‘썩-!’ 맞고 맥없이 쓰러진다.  
쓰러진 동료들을 돌아보던 경비병도 하나들 카멜의 꼬리치기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진다.  
겹에 질린 나머지 경비병들이 수풀이 움직이는 곳엔 무차별 광선총을 난사한다.

상관 사격 중지! 사격 중지!!

광선에 맞아 검게 타는 수풀.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사격을 멈추는 경비병들.  
정적 속에 바람이 수풀을 훑고 지나간다.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에도 흠칫 놀라 광선총을 겨냥하는 경비병들, 겹에 질린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며 수색한다.  
이때 광선에 살짝 스치는 부상을 입은 카멜이 본래색으로 나타난다.

상관 저기다!

카멜을 발견한 경비병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한다.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카멜과 필사적으로 뒤쫓는 경비병들.

카멜의 시점으로 빠르게 스쳐지나가는 풀잎들.  
냉철한 인상의 한 저격수가 달아나는 카멜의 등을 정확히 조준한다.

저격수 (혼잣말) 굿바이, 카멜..

저격수가 회심의 미소 지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갑작스레 날아든 아울이  
발톱으로 광선총을 획- 낚아챈다. 빈손이 된 채 황당하게 바라보는 저격수.  
경비병들이 아울을 향해 광선총을 난사하고...  
아울은 유연한 곡예비행으로 광선세례를 뚫고 날썰게 날아와 도망치는 카멜의 등을  
낚아채고 하늘로 비상한다. 경비병들이 광선총을 쏘지만 먼 거리라 빗나가고 만다.

## #77 창공 \_ 낮

아울의 발에 매달려가는 카멜, 아래를 내려다보면 녹색지대에서 경비병들이 허탈하게  
올려다본다.

카멜 (분하다) 배신자들! 날 보호해야 할 놈들이 날 공격해?  
아울 진정해, 친구. 못 믿을 게 인간이라구. 아래를 봐.

카멜이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막화된 황폐한 도시가 펼쳐져 있다.  
오아시스 같은 녹색지대마저 경비병들이 쏜 광선에 대부분 시커멓게 타버렸다.  
썩쓸한 표정으로 인간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카멜.

아울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몰라. 잘 보라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인간의 꼴을..  
카멜 난 청정풀잎을 계속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제 녹색지대마저 사라졌으니... (막막하다)  
아울 걱정 마. 내가 새로운 청정자연을 발견했으니까.  
카멜 (의심의 눈초리) 정말이야?  
아울 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카멜 거짓말이면 각오해.

힘찬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아울이 카멜과 함께 황색 구름 속으로 멀어진다.  
그 위로 들리는 둘의 대화.

카멜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니가 망보고 있었으면 봉변 안 당했잖아!  
아울 (우쭐) 성가신 놈, 처리 좀 하고 왔지.  
카멜 누구?  
아울 그 집게벌레 녀석.  
카멜 후훗~ 그거 반가운 소리군.  
아울 이제 훼방꾼도 사라졌으니 마음껏 드셔~

카멜 (웃음소리) 켈켈켈...

#### #78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컴퓨터로 프로그램의 시스템오류를 점검하는 바람. 곁에서 지켜보는 단비.

단비 (반신반의) 가능할까? 아빠도 못 고쳤는데...

바람 원인을 알고 있으니 해답은 나온 거나 다름없어.

벼룩로봇이 감염시킨 바이러스만 치료하면 돼.

프로그램 두뇌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바이러스를 점검하는 바람.

숨죽인 채 지켜보는 단비. 모니터화면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감염목록이 뜬다.

바람 빙~고!

바람이 능숙한 솜씨로 감염 바이러스를 삭제시킨다.

그러자 정상으로 돌아온 프로그램이 우렁차게 ‘개골개골~’ 소리를 낸다.

프로그램의 부활에 환한 미소 짓는 단비가 바람의 목을 와락 끌어안는다.

단비 고마워, 바람!

단비의 갑작스런 포옹에 볼이 발그레해지는 바람, 사춘기 소년의 설렘이 느껴진다.

프로그램, 포옹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찹찹 입맛을 다시다가 입가에 묻은 풀잎에 질겁한다.

프로그램 으헉~ 누가 나한테 풀잎 먹였어? 난 모래만 먹는다구. 텃텃-

인상 찡그리는 프로그램을 바라보며 깔깔 웃는 단비와 바람.

연구실 창 너머로 박쥐로봇1호가 소리 없이 날며 두 사람을 몰래 지켜본다.

#### #79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마박사가 박쥐1호의 시점화면이 전송된 모니터를 응시한다.

모니터 화면에 단비와 함께 기뻐하는 바람과 정상으로 돌아온 프로그램이 보인다.

마박사, 못마땅한 얼굴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마박사 (괘씸) 이 녀석... 넌 대체 누구 편인 거냐..

#### #80 민들레 언덕 가는 길 \_ 낮

카멜을 매단 채 힘찬 날개짓으로 기이한 절벽을 날아오르는 아울.

카멜의 육중한 무게 때문에 아울의 날개짓이 힘겨워 보인다.

이때,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 휘청하는 아울.

그 바람에 한발을 놓쳐 아울의 한쪽 발에만 위태롭게 매달린 카멜.

카멜 (발끈) 날 죽이려는 거야?!

아울 엄살은... 조그만 참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아울의 발에 매달려 세찬 바람에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카멜.

카멜이 눈알을 굴려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만큼 까마득한 높이다.

카멜 (겁에 질려) 떨어뜨리기만 해봐. 가만 안둘 거야!

아울 (짜증) 그냥 확 놔버린다!

카멜 (움짤, 친화적으로) 우리 친구 맞지? 친구끼리 믿어야지. 그치?

아울 너 그런 말투 짜증나.

카멜 (발끈하지만 참을 수밖에) 끄응...

카멜을 매달고 안간힘으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울.

#### #81 정박사의 연구실 \_ 낮

민들레언덕을 24시 감시하는 모니터를 심각하게 주시하는 단비와 바람.

모니터 화면에 아울이 카멜을 매달고 민들레언덕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단비 (걱정스레) 어떡해... 민들레언덕까지 황폐화시킬 작정인가 봐!

바람 민들레언덕?

단비 산 정상에 있는 작은 녹색지대야. 거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성한 곳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바람 그런 곳이 있었다니... 놀라워!

단비 아빤 민들레언덕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선 안 된다고 했는데...

바람 당연하지.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인간이 그곳을 알게 된다면.....  
(한숨) 어찌될지 너무도 뻔해.

단비 이제 민들레언덕이 세상의 유일한 녹색지대야.

그곳만은 꼭 지켜야 돼! 아빠를 위해서라도..

결연한 표정으로 마주보는 단비와 바람. 바람이 주먹을 불끈 쥔다.

#### #82 정박사의 연구소 비행출구 \_ 낮

고글을 쓴 단비와 바람이 딱정벌레 형태의 비행선에 탑승, 출발 대기 중이다.

운전석에 바람, 뒷좌석에 단비와 프로그램이 탑승했다. 산소호흡기를 쓰는 단비.

바람 (걱정스런) 괜찮겠어? 위험할 텐데..

단비    팬찮아. 내겐 프로그램이 있잖아.  
프로그램    개꿀~!  
바람    좋아, 출발이다~!

바람이 레버를 당겨 비행선을 발진시키려는데... 제자리에서 툭툭거리는 비행선.  
멋진 출발을 기대했는데 머쓱해지는 바람.

단비    (농담조로) 너 무면허 맞구나.  
바람    (굵적) 소형 비행선만 운전해서 좀 생소하네... 금방 익숙해질 거야.

기계 조작에 능숙한 바람, 서툰 운전이 점차 익숙해지며 쑹-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비행선.

바람    가자! 민들레언덕을 사수하러!

### #83 창공 \_ 낮

정박사의 연구소 지붕 비행출구에서 솟아오른 비행선이 창공으로 날아오른다.  
바람의 허리를 붙잡은 단비, 숨쉬기가 불편하지만 눈빛엔 강한 의지가 서려있다.  
프로그램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움찔 겁을 먹고 손잡이를 꼭 붙든다.  
멀리 보이는 신비스런 산봉우리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비행선.

### #84 민들레언덕 \_ 낮

아울에게 매달린 카멜이 천천히 언덕 위에 착지한다.  
눈알을 굴려 민들레언덕을 훑어보는 카멜, 입이 짹 벌어진다.  
사방이 온통 청정풀잎과 민들레꽃으로 가득하다.

카멜    (어리둥절) 여기가 어디야?  
아울    내가 찾은 지상낙원.  
카멜    (입맛 다시며) 오케이. 기다려라, 내 일용할 양식들아. 켜켄켄..

카멜이 전동제초기처럼 놀라운 포식력으로 풀잎을 먹어치운다.  
아울이 커다란 고목나무의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주위를 살핀다.  
아울의 천리안 시력이 멀리서 날아오는 무언가를 목격한다.  
아울의 동공이 확장되며 퀵 줌인 되는 화면. 그것은... 단비와 바람의 비행선이다.

아울    골치 아픈 놈들이 또 나타났어.  
카멜    (신경질적으로) 또 그놈들이야?  
아울    걱정 마. 내가 금방 처리하고 올 테니까.

아울, 커다란 날개를 휘저으며 비행선을 향해 날아간다. 마음껏 풀잎을 포식하는 카멜.

## #85 창공 \_ 낮

황색구름 사이로 산봉우리 절벽이 서서히 보인다.

이때, 바람의 비행선이 경고음을 울리며 접근하는 괴물체를 알린다.

바람    뭔가 접근하고 있어!

단비와 바람, 두리번거리지만 황색구름에 시야가 가려 확인이 힘들다.

근접할수록 경고음 점점 더 커지고... 잔뜩 긴장하는 단비와 바람.

이때, 구름 속을 하강곡선으로 날아가던 아울이 재빠르게 비행선 밑에서 치고 올라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바람의 얼굴을 할퀴다. 할퀴는 자국에서 피가 살짝 베어난다.

바람    앓-!!

아울의 기습에 순간적으로 조종감을 잃어버려 휘청거리는 비행선.

그 바람에 단비가 중심을 잃고 비행선에서 떨어진다.

단비    엄마아아아~!

바람    (놀라며) 단비!!

뒤에 있던 프로그램이 재빨리 혀를 쭉 내밀어 단비의 허리를 휘감는다.

로프처럼 감긴 프로그램의 혀에 매달려 허공에 떠있는 단비, 아찔하다.

아래를 내려다본 단비, 까마득한 높이에 겁에 질린다.

프로그램이 혀를 당겨 단비를 천천히 끌어올린다.

이때, 아울이 약점을 포착한 맹수처럼 단비를 향해 쏘살같이 날아온다.

위기감을 느낀 프로그램, 혀를 쭉- 끌어당긴다.

가까스로 비행선에 오른 단비와 간발의 차이로 빗겨지나가는 아울.

단비    (한숨 돌리며) 고마워,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꿀~!

바람    단비, 괜찮아?

단비    응. (바람의 얼굴을 보며) 피가 나.

바람    이까짓 거, 문제없어! (분하다) 아빠가 만든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분명 아빠가 지시했을 거야!

단비    설마 그럴 리가...

바람    아니. 아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그럴 분이야.

단비    절대 그렇지 않아!

단호한 눈빛의 단비를 약간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바람.

단비    세상에 어떤 아빠도 그럴 사람은 없어.  
          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다 같을 테니까..  
바람    .....

촉촉한 눈망울의 단비를 바라보며 정박사에 대한 그리움을 감지한 바람, 숙연해진다.  
이때, 다시 경고음이 울린다.

바람    단단히 붙들고 있어!  
단비    응.

조종 핸들을 꽉 붙잡는 바람. 단비가 바람의 허리를 꽉 붙잡는다.  
바람, 이를 악 물고 구름 속 아울을 노려보며 핸들을 꺾는다.  
아울을 추격하는 비행선. 아울도 피하지 않고 급회전해 비행선 정면으로 날아온다.  
이대로 정면충돌할 거 같은데 서로 속력을 줄이지 않는다.  
두려움을 애써 떨치려는 바람의 결연한 표정. 단비는 바람을 믿고 두 눈 질끈 감는다.  
아울이 매서운 기세로 날아와 바람을 뺏아채려는 순간, 급회전해 방향을 트는 비행선.  
비행선과 아울이 충돌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빗겨간다.  
날아가는 비행선을 뒤쫓는 아울의 스피드가 비행선을 능가한다.  
금새 거리를 따라잡은 아울이 뒤에서 단비를 뺏아챌 듯 하다.  
두려움에 바람의 허리를 더욱 꽉 껴안는 단비.  
프로그가 허 편치를 ‘슌- 슌-’ 날리지만 노련하게 피하는 아울.  
비행선 속력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바람의 눈앞에 암벽이 보인다.  
비장한 눈빛으로 암벽을 향해 돌진하는 바람.  
비행선을 따라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아울.  
단비가 살짝 눈을 떴다가 눈앞의 암벽에 기겁해 다시 질끈 눈감는다.  
암벽에 충돌하기 직전, 레버를 힘껏 잡아당겨 하늘로 급상승하는 비행선.  
뒤쫓던 아울, 뒤늦게 눈앞의 암벽을 보고는 경악한다.  
아울은 미처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암벽에 부딪혀 ‘쾅-!’ 폭발한다.  
내려다보는 바람과 단비의 고글에 폭발화염이 비취진다. 승리의 미소 번지는 두 사람.

## #86 마박사의 연구실 \_ 낮

아울의 시점화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마박사.  
앞 신의 장면 - 비행선을 뒤쫓던 아울이 암벽에 부딪히는 순간 화면이 딱 끊긴다.

마박사 (분노에 떨며) 아들... 기어코 나한테 도전하겠다는 건가..

천정에 매달린 박쥐로봇들이 ‘버릇없는 녀석!’ ‘뽀대를 보여줘!’ 주절댄다.

마박사 시끄러-!!

마박사의 서슬에 쫓그라드는 박쥐로봇들.  
분한 표정으로 주먹을 내리친 마박사, 연구실을 박차고 나선다.

#### #87 마박사의 연구소 비행출구 \_ 낮

박쥐 형태의 검은 비행선에 탑승한 마박사가 비장한 얼굴로 비행고글을 쓴다.  
마박사, 비행선을 발진시켜 슈웅- 출발한다. 터널 속을 빠르게 나아가는 비행선.

#### #88 창공 \_ 낮

마박사의 연구소 비행출구에서 빠져나온 마박사 비행선이 황색구름을 향해 날아간다.

#### #89 민들레언덕 \_ 낮

바람의 비행선이 타원으로 돌면서 민들레언덕 풀잎 위에 착륙한다.  
비행선에서 내리는 바람, 단비, 프로그.  
게걸스레 풀잎을 뜯어먹던 카멜이 멈칫, 돌아보며 인상을 찡그린다.  
카멜에 의해 망가진 민들레 언덕에 망연자실해하는 단비와 바람.

프로그 수척 셋. 나는 환경파괴자를 단호히 응징한다.

프로그가 응징하러 튀어가려하자 만류하는 단비.

단비 비틀도 없이 너 혼잔 무리야.  
프로그 이길 자신 있어요!  
단비 (불안한) 프로그, 너마저 잃고 싶지 않아.  
프로그 (단비와 바람의 눈치를 살핀다)  
바람 지체할수록 민들레언덕은 더 망가질 거야.  
그럼 영영 되돌릴 수 없어. 프로그를 한번 믿어봐.  
프로그 박사님을 위해 싸울게요!  
단비 프로그...

단비와 프로그, 마주보며 눈빛 교감을 나눈다.  
강한 의지를 보이는 프로그를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단비.  
프로그가 카멜 앞으로 경충 점프해서 다가간다.  
서로를 견제하며 탐색전을 펼치는 카멜과 프로그.  
프로그가 입을 썉 벌리고 기습적으로 혀 편치를 날려 카멜의 얼굴을 강타한다.  
열 받은 카멜, 얼굴을 실룩거리며 필살기 위장술을 펼친다.  
주변색으로 완벽히 위장한 카멜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프로그.  
그 순간, 날아온 카멜의 보이지 않는 꼬리 편치를 맞고 휘청하는 프로그.

더욱 강력해진 카멜의 연타에 프로그램의 금속몸체가 찌그러진다.  
안타깝게 지켜보는 단비와 바람.  
부상당한 프로그램이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서며 경계한다.  
약점을 잡은 카멜이 프로그램의 부상부위를 집중 공격한다. 썩- 썩- 썩-!  
급기야 프로그램의 내부 부속품이 스파크를 튀기며 장애를 일으킨다.  
마치 마비된 것처럼 움직임이 툭툭 끊겨 부자연스런 프로그램.  
다시 본래색으로 되돌아온 카멜이 결정타를 날리려고 스멀스멀 다가온다.  
위기의 프로그램, 허 펀치를 날리려고 입을 찌익 벌리지만 시스템 고장으로 허가  
튀어나오지 않는다. 좌절하는 프로그램을 야비한 미소로 보는 카멜.  
다가온 카멜이 프로그램의 상처 부위에 회심의 한방을 날린다. 썩-!!  
강한 충격에 스파크를 튀기며 파열되는 프로그램의 내부 부속품.

단비     프로그램-!!

바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비가 달려와 프로그램의 눈을 바라본다.

단비     (애타게) 부탁이야.. 민들레 언덕을 지켜줘... 제발...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프로그램의 눈.  
아무리 움직여보려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안타까운 표정.  
프로그램의 슬픈 눈이 점차 희미해진다.

단비     안돼, 프로그램! 기운 내!  
프로그램 (희미하게)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프로그램의 눈은 끝내 불빛이 꺼지고 만다.  
절망스런 단비, 프로그램을 부여안고 눈물을 글썽인다.  
단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프로그램의 머리 위로 툭 떨어진다.  
지켜보던 바람, 울분에 찬 얼굴로 주먹을 움켜쥐는다.

카멜     (단비에게) 내 구역에서 꺼져!  
단비     (카멜을 쏘아보며) 여긴 너 같은 변종로봇이 있을 곳이 아냐!  
카멜     변종로봇?  
단비     넌, 탐욕스런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이야.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로봇이란 말야!  
카멜     (발끈) 괴물..? 꼬마라고 봐줄랬더니..

카멜이 성난 표정으로 단비에게 다가오자 바람이 달려와 두 팔 벌려 가로막는다.

바람     카멜, 멈춰!  
카멜     비켜!

바람    명령이다! 그만해!

서로를 강렬하게 마주보는 바람과 카멜.

카멜    왜 여자엘 감싸는 거지?

바람    .....

카멜    박사님 아들이 왜 정박사 편을 드는 거냐?

바람    난..... 정의의 편이야. 그리고 이 엘 좋아해.  
너 같은 괴물이 그 마음을 알 리 없겠지만..

결연한 표정의 바람을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는 단비.

못마땅한 듯 얼굴을 실룩거리는 카멜.

카멜    나 성질 더럽거든. 마박사 아들이라고 봐주진 않아.

바람    나 역시 아빠의 피조물이라고 봐주진 않아. 아올도 내가 제거했거든.

카멜    켈켈켈... 배짱 한번 좋은데. 과연 마박사를 빼다 박았어.

바람    뭐? 내가 아빠랑 닮았다구?

카멜    그러엄. 그게 인간의 유전자라는 건가?

바람    (격양) 난 아버질 닮고 싶지 않아! 난 아버질 경멸해!

카멜    마박사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알아? 난 마박사의 눈물을 봤어.

바람    (놀라며) 뭐?

인서트- #27 부상당한 카멜을 치료하는 마박사와 아들의 실랑이에서 계속.

마박사    무슨 소리야! 난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걸 제공하고 있는 거야.

          니가 아직 어려서 아버지 뜻을 이해 못하겠지만..

바람    솔직해지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바람이 반항기 가득한 얼굴로 연구실을 나간 후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마박사. 옆구리 부상당한 카멜이 마박사를 쳐다본다.

카멜    왜 눈에 물이 고이지?

마박사    (착잡) 아들이 날 미워하는 거 같아.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온 건가...

          왜 점점 관계가 어긋나기만 하는 건지... (한숨)

          하긴 항상 로봇에 과몰입해서 살았으니까.

          아들과 가슴 터놓고 대화한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

          난 아빠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자책하는 마박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카멜.

다시 현재. 카멜의 얘기를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는 바람.

카멜    마박사를 미워하지 마. 그는 외로운 사람이야.  
바람    웃기지 마! 니가 뭘 알아! 기껏 고철덩어리 주제에!  
카멜    역시 인간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종족이야. 항상 그게 문제라니까.  
          인간도 우리처럼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켈켈..  
바람    잘난 척 하지 마!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봤자 넌 괴물일 뿐야.  
카멜    진짜 괴물은 바로 인간이야!  
          지구를 이 따위로 만든 것도 다 너희 괴물들이 한 짓이란 거 몰라?

카멜을 노려보는 바람, 불끈 쥔 주먹에 힘이 빠진다.

바람    그래... 인간이 괴물이란 거 인정해.  
          근데 괴물의 피조물인 넌 뭐야.  
카멜    .....  
바람    이제 그만 사라져.  
카멜    어림없는 소리. 이 지구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아.  
          인간은 이기적이고 나악한 종족이니까.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야.

발끈한 바람, 하지만 맨몸으로 카멜과 대결할 수 없어 울분을 삼킨다.

이때, 바람 뒤에 숨어있던 단비가 앞으로 한 발짝 걸어 나온다.

단비    내가 상대해 주겠어.  
카멜    겁쟁이 꼬맹이는 빠져.  
단비    두렵지 않아. 얼마든지 덤벼봐, 이 괴물아!

발끈한 카멜이 덤빌 자세를 취하는데 한 치의 동요도 없이 카멜을 노려보는 단비.  
지금껏 본 적 없는 단비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놀라는 바람.  
공격태세의 카멜 앞에 당당히 마주선 단비, 주머니에서 야구공 같은 금속구(球)를 꺼낸다.

카멜    뭐야? 그건..  
단비    아빠가 선물해 준 로봇.  
카멜    (비웃으며) 켈켈켈.. 지금 소꿉장난해? 그 귀여운 공으로 날 상대하겠냐?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단비, 손바닥 위 금속구가 ‘위이잉-’ 8조각으로 나뉘지며 열리자  
그 속에서 긴 다리의 조그만 거미로봇(스파이더)이 끝도 없이 기어 나온다.  
땅 위에 뛰어내려 착지한 백여 마리의 스파이더 떼가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오자  
가소롭게 비웃던 카멜이 움찔한다.

카멜    (애써 당당한 척) 나 로봇의 제왕 카멜이야!  
          이깃 거미들한테 겁먹을 줄 알고!

마치 진군하는 병사처럼 전열을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스파이더 떼.  
카멜의 커진 금속 눈동자에 물려오는 스파이더 떼가 비춰진다.  
카멜, 스파이더가 발밑까지 접근하자 사정없이 발바닥으로 내려찍는다.  
‘쿵- 쿵-’ 몇몇 스파이더가 압사 당하자 흩어지는 스파이더들.  
하지만 잘 훈련된 병사처럼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스파이더들, 카멜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압박한다. 카멜, 360도 눈알을 굴리며 잔뜩 경계한다.  
잠시 긴장된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공격신호에 일제히 기어오르는 스파이더들.  
수많은 스파이더가 카멜의 다리와 꼬리에서 기어오른다.  
마치 적의 요새를 함락시키는 병사들처럼 장관을 이룬다.  
카멜이 몸을 뒤틀고 꼬리를 사납게 휘두르면 몇몇 스파이더가 떨어져나가고...  
떨어진 스파이더는 끈질기게 다시 기어오르기를 반복한다. 그럴수록 점점 지쳐가는 카멜.  
기회를 포착한 스파이더들이 꼬리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카멜의 몸체를 휘감는다.  
카멜, 거칠게 몸부림치지만 나일론실 보다 질긴 거미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카멜이 안간힘으로 거미줄을 겨우 끊으면 다시 휘감기를 반복하는 스파이더들.  
결국 카멜의 몸체가 수많은 거미줄에 완전 포박당해 버린다.  
마치 수많은 난쟁이들에게 포박당한 걸리버처럼.  
저항해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카멜,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씩씩댄다.  
스파이더들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는 바람.

바람 이 조그만 로봇들이 카멜을 이기다니... 정말 놀라워!  
단비 아빠가 날 지켜주기 위해 만든 호신용 로봇이야.  
바람 널 아끼는 박사님 마음 알 거 같아.

잔잔한 미소로 마주보는 단비와 바람.  
이때, 황색하늘 저 멀리서 시커먼 뭔가가 날아온다.

단비 저게 뭐지?

점점 다가오는 시커먼 그것은..... 박쥐로봇 떼다!  
수십 마리의 박쥐로봇이 저승사자처럼 검은 날개를 휘저으며 날아와 카멜의 주위에 물려  
든다. 박쥐로봇들, 날카로운 송곳니로 스파이더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스파크를 튀기며 처참하게 부서지는 스파이더들.  
도망가는 스파이더를 쫓아 날아가 물어뜯는 박쥐로봇.  
스파이더들이 합동작전으로 거미줄을 쏘아 몇몇 박쥐로봇을 포박하지만 다른 박쥐로봇의  
도움으로 거미줄을 끊는데 성공한다.  
스파이더들,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영리한 박쥐로봇의 파상공격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다.  
박쥐로봇의 강력한 송곳니에 파괴되어 전멸한 스파이더들.  
예상치 못한 박쥐로봇의 반격에 당혹스런 단비와 바람.  
스파이더를 제압한 박쥐로봇들이 카멜을 휘감은 거미줄도 송곳니로 끊어버린다.  
박쥐로봇의 도움으로 거미줄을 끊은 카멜이 단비를 매섭게 노려본다.

카멜    이 꼬맹이 녀석! 감히 나한테 도전해?! (박쥐로봇에게) 본때를 보여줘!

박쥐로봇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단비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겁을 준다.  
겉에 질려 머리를 감싼 채 비명 지르는 단비를 감싸고 보호하는 바람.

바람    너희들, 이 엘 건드리기만 해봐!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박쥐로봇들, 바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위협을 가한다.  
몇몇 박쥐로봇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람의 얼굴을 할퀴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단비를 보호하는 바람.

#### #90 민들레언덕으로 가는 창공 \_ 낮

비행선을 타고 창공을 나는 마박사가 모니터를 통해 카멜의 시점화면을 주시한다.  
수많은 박쥐로봇들이 단비와 바람을 위협하는 장면을 보며 기겁하는 마박사.

마박사    저 버릇없는 박쥐 놈들, 감히 내 아들을..!

격분한 마박사, 손목에 찬 초음파 원격조종기의 붉은색 버튼을 누른다.

#### #91 민들레언덕 \_ 낮

날아다니며 단비와 바람을 위협하던 박쥐로봇들이 일순간 고통스럽게 발광한다.  
미친 듯이 몸부림치다가 황색하늘 저 멀리 혼비백산 날아가는 박쥐로봇들.  
박쥐로봇의 갑작스런 태도 돌변에 어리둥절한 단비.

단비    어떻게 된 거야?

바람    내가 아냐. 아빠가 쫓아낸 거야.

단비    마박사님이..?

바람    응. 아빤 저들을 초음파로 조종할 수 있거든.

바람의 얼굴에 가득한 핏자국 상처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단비.

단비    괜찮아?

바람    문제없어.

단비    정말 고마워.

순박한 미소 짓는 바람을 보며 단비도 미소 짓는다.  
표정이 일그러진 카멜, 단비와 바람을 향해 위압적으로 다가온다.

카멜     난 저런 단세포적인 로봇과는 차원이 틀려.  
박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단 말야. 박사 아들이라고 절대 봐주지 않아!

어기적 다가오는 카멜과 뒷걸음질 치는 단비와 바람.  
겉에 질린 단비의 시선에 먹구름 낀 하늘 저 멀리서 날아오는 뭔가가 보인다.  
점점 다가오며 선명해지는 그것은..... 비틀이다!  
믿기지 않게 비틀이 날개를 펴득이며 하늘을 날아오고 있는 것이다.

인서트 - 신# 68에서 계속. 용광로가 있는 굴뚝으로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비틀이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날개를 파닥거린다.  
영성한 날개짓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붙는다.  
비틀이 뜨거운 열기가 후끈 느껴지는 용광로에 거의 다다를 즈음 날개짓에  
가속도가 붙어 다시 날아오른다. 숨겨진 능력에 스스로 놀라는 비틀.  
꼬불꼬불한 굴뚝을 거슬러 올라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비틀.

날아오는 비틀을 바라보는 단비와 바람의 얼굴에 희망이 번져간다.  
비틀이 민들레언덕에 사뿐히... 착지하려다 빼앗긴다.  
첫 비행이라 어설픈 착지에 머썩한 비틀, 하지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무리한다.  
감격한 단비가 달려가 비틀을 와락 끌어안는다.

단비     비틀, 돌아와 줘서 고마워!  
비틀     봤죠? 저 날았어요.  
단비     그래, 넌 해냈어!

성가신 비틀의 등장에 카멜이 인상을 찡그린다.

카멜     저 놈, 처리했다고 했었는데... 오냐, 덤벼라! 내가 끝장을 내주마!

카멜의 도발에 비틀이 맞서는데, 단비가 비틀 몸체의 상처들을 발견하고 놀란다.

단비     비틀. 이 몸으로 싸울려구?  
비틀     괜찮아요.  
단비     이러다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어.  
비틀     절대 지지 않아요. 박사님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어요.

가슴 먹먹한 단비, 비틀 몸체의 상처를 손으로 어루만진다.

단비     비틀... 넌 마지막 희망이야. 알지?

결연하게 고개 끄덕이는 비틀의 상처에서 손을 떼고 보내주는 단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비틀에게 작전지시하는 바람.

바람 (귓속말로) 카멜이 틀림없이 위장술을 쓸 거야.  
그때 풀잎이 흔들리는 것만 주시해. 그럼 공격할 수 있어. 알았지?

비틀, 고개 끄덕이고는 카멜 앞으로 다가간다.  
두 로봇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순간.  
풀밭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탐색전을 펼치는 두 로봇.  
카멜, 이번에도 필살기 위장술을 펼친다. 집게를 벌려 공격자세 취하는 비틀.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보이지 않는 카멜의 꼬리 편치에 한방 얻어맞는 비틀.  
비틀, 다시 공격자세를 취하지만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인 카멜.  
비틀이 자세히 보면 풀잎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인다.  
펜싱선수처럼 순간적으로 접근, 집게로 찌르며 기습 공격하는 비틀.  
불의의 일격을 당한 카멜이 뒷걸음질 치면서 풀잎이 심하게 흔들린다.  
위치를 감 잡은 비틀이 슬금슬금 다가간다.  
카멜, 눈동자를 굴러 주위를 살피면 근처에 풀잎이 없는 흙바닥이 보인다.  
카멜, 재빨리 흙바닥으로 기어가면서 위장색을 바꾼다.  
흙 위에 생기는 미세한 카멜 발자국을 유심히 주시하는 비틀.  
그런데 카멜이 발로 흙을 마구 비벼 흙먼지를 일으킨다.  
뿌연 흙먼지에 위치를 가늠할 수 없게 된 비틀, 난감한 듯 이리저리 살핀다.  
그 순간, 비틀의 옆구리를 ‘쿵-!’ 머리로 세차게 들이박는 카멜.  
비틀의 최대 약점을 알고 있던 카멜의 회심의 한방!  
비틀의 몸체가 휘청하며 그대로 뒤집어진다.  
전복된 채 바로잡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비틀.

단비 (안타까운) 비틀, 힘내!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받은 비틀, 날개를 힘차게 파닥거리지만 흙먼지만 날릴 뿐 뒤집지 못한다.  
비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좌우로 몸체를 흔들거려 본다.  
점점 힘이 붙어 좌우로 흔들리다가 마침내 몸체를 뒤집는데 성공한다.  
주먹을 쥐고 환호하는 단비와 바람.  
하지만 쉴 틈 없이 날아온 카멜의 꼬리 편치를 맞고 휘청하는 비틀.  
한방! 두방!! 세방!!! 연타를 맞는다.  
비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집게로 위협해보지만 빗나가기 일쑤다.  
몸체를 뒤집는데 에너지를 소비한 비틀은 급격히 파워가 감소한다.  
움직임이 둔해진 비틀은 카멜의 집중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바람 비열한 카멜... 먼지 때문에 위치를 가늠할 수 없잖아..

단비 (안타까운) 어떡해... 비틀 마저 지면 끝장이야.

이때, 풀잎에 똑- 똑- 한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진다.  
단비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짙은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진다.

빗방울은 단비의 얼굴에도.. 바람의 얼굴에도.. 프로그의 머리에도.. 비틀의 머리에도..  
 그리고 카멜에게도 떨어진다. 뿌연 먼지도 비에 씻겨 진다.  
 위장한 카멜에게 비가 떨어지면서 몸체에 부딪힌 빗방울이 카멜의 형체를 드러낸다.  
 오랜 가뭄으로 잊혀진 비가 구세주처럼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카멜에게 다가오는 비틀.  
 비틀이 집게를 벌려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카멜의 꼬리를 땡강- 자른다.  
 불꽃을 튀기며 꼬리가 잘리자 본래색으로 되돌아온 카멜.  
 흙바닥에 꿈틀대는 잘린 꼬리를 바라보며 경악하는 카멜.  
 이제 카멜은 필살기 위장술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비틀을 분하게 쏘아보던 카멜이 360° 눈을 굴려 주위를 살펴보면 자신의 뒤쪽이  
 낭떠러지 절벽이다. 음흉한 표정 지으며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카멜.  
 그럴수록 따라가며 압박하는 비틀.  
 카멜의 뒷발이 낭떠러지 끝에서 멈춘다. 절벽 아래로 아득히 떨어지는 돌맹이.  
 카멜과 비틀의 비장한 눈빛이 교차한다.  
 이미 대세는 결정 난 상황에서 마지막 굳히기를 시도하는 비틀.  
 비틀이 재빨리 달려들어 집게로 카멜을 떠밀려는 순간,  
 카멜이 네발로 비틀의 몸체를 붙잡는다.  
 카멜 발바닥의 흡착 빨판이 비틀의 금속몸체에 찰싹 달라붙었다.  
 꿈쩍없이 당한 비틀,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한다.  
 마지막을 예감한 비틀, 단비를 바라보며 의연한 표정 짓는다.  
 카멜, 회심의 미소 지으며 절벽 아래로 몸을 내던진다.  
 카멜에게 붙들려 함께 아득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비틀.

단비    비틀-!!

단비와 바람, 달려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다.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비틀과 카멜.  
 충격 속에 비 맞는 단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 #92 민들레언덕 절벽 \_ 낮

검은 비행선을 타고 날아오는 마박사의 시선에 카멜과 비틀이 엉겨 붙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마박사 카멜, 안돼-!!

카멜과 비틀은 끝없이 추락하다 암벽에 부딪혀 쿵-! 폭발한다.  
 마박사의 고글에 비치는 커다란 폭발화염.  
 야망이 덧없이 부서져버린 듯한 좌절감에 휩싸이는 마박사.  
 분노한 마박사의 눈빛에 점점 광기가 번져간다.

마박사 이 녀석들!

마박사가 이를 악 물고 전속력으로 민들레언덕을 향한다.  
이때 거센 비와 함께 갑작스레 불어온 돌풍에 마박사의 비행선이 휘청하며 휩쓸린다.  
마박사, 핸들을 잡고 힘껏 조종해보지만 역부족이다.  
강한 돌풍에 떠밀려간 마박사의 비행선이 암벽을 향해 날아간다.

마박사 으아아아악~!!

행운인지 불행인지 비행선이 암벽 틈새로 자라난 나뭇가지에 툃- 걸린다.  
절벽의 나뭇가지에 걸린 채 뒤집어진 비행선에서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마박사.

### #93 민들레언덕 \_ 낮

절벽 아래를 안타깝게 내려다보는 단비, 감정에 북 받혀 눈물이 글썽인다.

바람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울먹이는 단비를 위로하는 바람의 눈도 축축이 젖는다.

마박사 (V.O) 살려줘~

희미하게 들리는 마박사의 절박한 음성엔 바람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마박사가 보인다.

바람 (놀라며) 아버지-! (단비에게) 잠시만 기다려.

바람이 재빨리 비행선에 탑승, 발진시켜 절벽 아래로 날아간다.  
절벽 끝에서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는 단비.

### #94 민들레언덕 절벽 \_ 낮

바람의 비행선이 날아와 절벽의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박사 가까이 접근한다.

바람 아버지-!

마박사 아들아! 살려줘..

마박사는 지금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애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다.  
나뭇가지가 마박사 비행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부러진다.  
설상가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비행선이 조금씩.. 조금씩.. 미끄러진다.

마박사 가까이 오면 위험해!  
바람 (손을 뺀어) 아버지, 제 손 잡아요!

인서트 - 플래시 백. 바람의 방에 있던 사진 액자에서 본 어린 꼬마아이(바람)가  
마박사가 만들어준 공중부양 슈퍼보드를 타고 언덕 위를 질주하며 놀고 있다.  
빠른 스피드를 즐기는 바람의 짜릿한 표정.  
마박사, 언덕에 서서 아들의 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카메라로 찍어준다.  
바람, 그만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휘청한다.  
놀란 마박사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달려온다.  
슈퍼보드에서 떨어진 바람이 언덕 낭떠러지 끝 바위를 간신히 움켜쥔다.  
아래를 힐끔 내려다본 바람, 아찔한 높이에 겁에 질린다.  
달려온 마박사가 언덕 위에서 손을 힘껏 뻗는다.

마박사 아들! 내 손 잡아!  
바람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한다)  
마박사 아들아. 아빠를 믿으렴.

고개 끄덕인 바람, 용기내 손을 뻗어 마박사의 손을 잡는다.  
마박사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바람, 안도의 표정 짓는다.

다시 현재. 마박사가 손을 뻗어 바람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빠직-’ 나뭇가지가 살짝  
부러지며 덜컥 내려앉는 마박사의 비행선.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높이.  
공포감에 질린 마박사의 절박한 표정. 다시 조심스레 근접하는 바람의 비행선.

바람 (손을 뻗어) 아버지, 다시 해봐요!  
마박사 (머뭇거린다)  
바람 어서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마박사가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뻗어 바람의 손을 잡는다. 굳게 맞잡은 부자의 손.  
그 순간, 나뭇가지가 완전히 부러지며 아래로 추락한 비행선이 암벽에 부딪혀 쿵-!  
거대한 폭발화염을 일으킨다.  
바람의 손에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마박사. 바람, 안간힘으로 끌어올린다.  
간신히 바람의 비행선에 올라선 마박사, 다리에 힘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는다.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죄스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마박사.  
비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운 바람.

바람 아버지, 괜찮아요?  
마박사 아들아, 미안하다... 니가 이렇게 성장한 줄도 모르고, 이 못난 아빠...  
바람 용서는 단비에게 받으세요.  
마박사 (고개 들어 바라본다) .....

착잡한 표정으로 레버를 당기는 바람. 비행선이 민들레언덕 위로 날아오른다.

## #95 민들레언덕 \_ 낮

바람의 비행선이 민들레 언덕에 착지한다.  
비행선에서 내린 바람과 마박사가 단비와 마주선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세 사람의 얼굴에 흘러내리고...  
마박사, 고개 숙인 채 단비 앞에 무릎 꿇는다.

마박사 날... 용서해다오. 너희 아버지.....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단비의 얼굴.

단비 (마박사를 일으키며) 일어나세요, 박사님.  
마박사 (일어선 채 고개를 못 든다)  
단비 정말 뉘우친다면 자연을 지키는 로봇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요.  
마박사 (단비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린다)  
단비 해줄 수 있죠?  
마박사 (고개 끄덕) 약속할게... 내 친구를 위해...

진심으로 속죄하는 마박사. 너그럽게 용서하는 단비를 보며 마음이 짝한 바람.  
단비의 얼굴에도.. 바람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진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촉촉한 눈으로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는 단비, 바람, 마박사.  
햇살이 민들레언덕에 환상적인 일곱 빛깔 무지개를 빚어낸다.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를 감탄하며 바라보는 세 사람.  
비 맞은 민들레꽃과 풀잎이 더욱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나뭇잎에 맺힌 투명한 빗방울이 햇살에 반짝인다.

단비 잠깐만. 찾을 게 있어.

커다란 고목나무로 천천히 걸어가는 단비를 바라보는 바람과 마박사.  
단비가 고목나무 앞에 서서 줄기의 구멍 속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단비 (혼잣말) 아빠... 이제 알려주실 거죠.

단비, 조심스레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간 손이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낸다.  
단비, 기대와 설렘으로 종이를 펼쳐보면 정박사가 어릴 적 그렸던 그림이 보인다.  
(이제서야 관객은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민들레언덕에서 내려다보며 그린 그림 - 그림 속 세상은 푸르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다.

황사로 뒤덮인 황량한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 놀라는 단비.

바람이 다가와 단비와 함께 그림을 바라본다.

단비 (감회에 젖어) 아빠가 만들려던 세상이야.

바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만들 세상이야.

바람이 불어 종이가 펴력인다.

단비,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바라보면 상쾌한 바람에 민들레 홀씨가 떠다닌다.

눈송이처럼 아름다운 민들레 홀씨가 세상 아래로 천천히 날아간다.

단비 홀씨가...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주겠지?

바람 (고개 끄덕인다)

마지막 남은 자연의 낙원, 민들레언덕을 둘러보며 희망의 빛이 번지는 단비의 얼굴.

인서트 - 단비의 환상이 현실처럼 펼쳐진다.

황량한 세상이 마술처럼 정박사가 그린 그림 속 푸른 세상으로 변해간다.

비가 내린 세상에 홀씨가 떨어지고 홀씨가 자라서 민들레꽃으로 핀다.

풀과 나무들이 대지를 뚫고 올라와 싱그럽게 자란다.

삭막했던 도시는 푸른 자연으로 물들고 사람들이 닫힌 창문을 활짝 열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본다. 기적처럼 황색도시가 녹색도시로 바뀐다.

도시엔 마박사가 만든 자연지킴이 곤충로봇들이 시민의 친구처럼 함께 어울린다.

로봇을 만지고 장난도 치는 아이들.

그 도시 속을 바람과 손잡고 다정히 걷는 단비.

단비가 산소호흡기를 벗은 채 상쾌한 공기를 가득 들며 마신다.

기분까지 맑아지는 단비의 표정.

민들레 홀씨의 낙하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단비와 바람.

마박사도 아름다운 자연의 장관을 지그시 바라본다.

마박사 친구... 자네가 그토록 지키려했던 게 바로 이거였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마박사의 눈빛에 회한이 스민다.

정박사의 유골비행정일까? 하늘 저 멀리 반짝 빛나는 무언가.

단비의 손을 지그시 잡는 바람. 환한 미소로 마주보는 단비와 바람.

민들레언덕 점점 멀어지며 룡 솟으로 비친다.

두둥실 허공을 날아가던 민들레 홀씨가 화면을 덮치며 F.O

End